

요 약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가족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청소년의 가족 이탈을 막고 사회적 지원 체계를 조성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문제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그들이 가정에서 경험하고 지각하는 가족문제를 가족체계, 부모자녀관계, 의사소통 문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로써 연구하였다. 둘째,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교수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가족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개방형 질문으로 설문조사한 내용과 청소년들이 보는 주변의 청소년기 가족문제에 대해 응답한 결과도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한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시키는 가족문제는 가장 높은 응답율이 부부간, 고부간, 부모자녀간 불화였고, 두번째로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부재 및 단절이었다. 그 다음은 학업성적을 중시하는 과잉교육열 문제와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를 각각 지적하였다. 그러나, 과잉기대와 과잉교육열을 합할 경우, 교육문제가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부모의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 강요에 의한 자녀의 통제, 물질 중심의 양육태도도 적지 않게 지적되었고,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대해 무지한 부모 문제도 지적되었다.

다른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변의 일반 청소년기 가족문제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복수 응답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67.1%)가 가장 주된 가족문제로 지적되었다. 부모들이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56.4%),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51.1%),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부재(48.2%), 임시위주의 양육(44.9%)도 각각 주요한 가족문제로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적한 우리사회의 주변 부모들의 문제 행동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단이 지적한 가족문제와 유사하여, 임시 위주의 양육에 바탕을 둔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 부모-자녀간의 대화 부재 및 대화단절, 그리고 청소년의 심리에 대한 부모의 이해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다음, 청소년들이 응답한 자신의 가족체계의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집에 태어난 것에 만족한다는 경우는 56.6%로서, 반을 약간 상회하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집에 태어난 것에 만족할 뿐이었다. 식구들은 각자의 장점을 인정해 주고 존중한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리고 대체로 그렇다는 45.7%로서, 자녀의 긍정적 행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인정해주는 가정교육의 실제 방법면에서 미숙한 면을 보였다. 식구끼리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문항에 대해 43.3%가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족이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지원 체계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청소년의 가출로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족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가족이탈 성향은 분명히 우려되는 상태이다.

청소년의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 지각 양상은 가족의 경제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을 포함하여 가족간의 소원함, 무관여, 가족간의 불화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부모가 생활비나 학비 때문에 돈 걱정을 하신다는 응답 비율이 25.5%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가정 형편에 응답자의 약 1/4이 신경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응답율이 약 10% 정도, 혹은 20% 미만으로 떨어지지만 청소년들이 건강하지 않은 가족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부모님이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싸운다, 가족끼리 소리 지르고 싸워도 다른 식구들은 관여하지 않는다, 가족 각각 자기 뜻대로만 행동한다는 반응, 부모간의 양육 방침이 달라서 혼란스럽다, 형제간에 서로 때리고 싸우거나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청소년이 부모와의 대화 장애 원인으로 복수 응답한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자신과 부모님 어린 시절이나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것이 싫기 때문(56.6%)이라는 응답과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하기 때문(56.0%)이라는 응답이었다. 한편, 식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게 때문(38.1%)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의사소통에 관한 부모의 어떤 태도가 청소년을 화나게 하는 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청소년 자신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지시만 내리려고 할 때(52.9%),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낼 때(49.5%), 부모의 생각만이 옳고 내 의견은 잘못되었다고 볼 때(47.9%)가 각각 거의 50% 내외의 응답율을 보였다.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으로 할 때, 나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들을 때, 나의 말꼬투리를 잡을 때도 지적되었다.

이상은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선 사회의 구조 및 의식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므로 청소년의 문화와 심리에 대해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응답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 모르고, 또 자신들의 사고 방식에 대해 모른다고 각각 응답자의 60% 내외 정도가 지각하고 있었다. 청소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부모가 기대한다는 문제, 그리고 부모의 못 이룬 꿈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한다는 응답율이 각각 50% 이상 달했고, 꾸짖을 때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 경우에 대한 응답율도 높았다.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고 말하는 경우, 살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 자식에게는 말로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 자신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가 지켜야 할 사항은 많지만 부모가 지켜야 할 사항은 거의 없다는 경우, 걸핏하면 신경질을 낸다는 경우가 각각 30%를 상회하는 응답율을 보였다. 거기다 술 취한 모습을 자주 본다는 응답율도 세명 중 한명꼴(33.6%)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의 사회화를 위한 역할 모델이 되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 결여와 성실치 못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문제 행동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서 더 두드러지게(10-30% 이상) 나타났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장애 요인과 부모의 문제 행동간의 상관분석에 의하면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가족체계에 문제가 많은 가족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고, 또한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도 많고, 부모의 문제 행동도 많았다. 따라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경우, 어느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의 복잡성을 말해 주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가족체계의 특성, 의사소통, 부모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운데, 교급별, 직업별, 가계소득별 변수가 가족문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족체계에 대해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아버지의 직업별로는 농업이거나 생산 노무직인 경우, 가계소득별로는 저

소득층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했다. 결국 경제적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업계 고등학생과 아버지의 직업별 지위가 낮고, 경제력이 가장 낮은 저소득층 집단의 중고등학생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 세 변수 즉 교급별(실업계 학교), 직업, 소득수준은 모두 계층 개념을 이루는 요소로서, 가족의 계층이 낮은 청소년이 가족체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가장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별로 보았을 때, 취업모 자녀는 가족체계와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있다고 응답하여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가족체계 문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직업을 직종별로 분석해 볼 때, 어머니가 생산노무직, 농업종사자인 경우에 가족체계에서 가족간 폭력, 경제적 불만, 가족내 규칙과 질서의 문제를 청소년들이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머니의 취업 유무보다는 어머니의 직종에 따라 가족체계 문제가 지적되므로 여기서도 계층의 문제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었다.

부모의 문제 행동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부모의 문제 행동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하위 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그 내용에서 형식과 체면을 중시하는 면,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 편애를 한다거나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행동, 부모의 이기적 태도 등 부모의 부정적 문제 행동을 남학생이 더 많이 보고하였다. 그리고 계층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보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부정적 부모의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서도 계층과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가장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이 생산노무직이나 농업종사자인 경우 자녀에 대한 무관심, 지나친 관대, 과잉기대를 하며, 자녀의 귀감이 못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류 계층 부모의 문제 행동은 그들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의해 구조적으로 자녀에게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잠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급별, 직업별, 가계소득별 사회계층에 따른 응답결과의 차이는 대도시, 중상층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시사하는 바 있다. 즉,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류층, 그리고 농촌의 부모교육이 중시되어야 하고, 그들의 계층과 관련된 열악한 가족환경의 개선도 중요한 문제점임을 부각시켜준다. 그러나, 계층이 높은 가정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항상 문제가 적은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나타난 부정적

부모의 모습은 자녀생활에 대해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자녀에 대해 간섭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가족문제가 결국 집생각만 하면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40.4%), 그리고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한 적이 있다는(38%) 청소년들을 가족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가족이탈 성향과 가족체계 문제,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장애요인, 부모의 문제 행동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와의 관계, 자녀양육 태도, 가족성원간의 관계에 대해 부모와 사회가 제고할 필요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관찰하고, 경험한 연구내용의 검토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가족문제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그것은 임시위주 교육 및 양육과 관련된 과잉기대, 부모들의 청소년 심리와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일관성 없고 원칙이 없는 문제 행동, 성취와 능력에 대한 격려의 결핍, 합리적인 지도의 결핍, 인간성의 깊이 및 사회성을 결여한 모습이다. 여기서 청소년들은 부모와 대화가 부족하고, 또 대화를 하더라도 의사소통 방법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 안

1. 청소년 관련 교육 및 상담, 시설, 가족지지 서비스

가족기능의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아버지 교육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부모교육이 시급하므로, 기업에서 사원 교육프로그램에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화목한 가정이 가져오는 업무 능률성 향상의 측면에서도 기업이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다.

청소년이 겪는 가족문제 해소를 위한 자조집단 형성과 자조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조집단은 필요에 따라 어머니집단, 아버지집단, 자녀집단으로, 혹은 문제 유형에 따라 소집단화하여 모임을 확대해 감으로써 원활한 라포형성과 문제해결 및 완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응집력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청소년들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돕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능동적이 되도록 청소년을 주체로 하는 접근법을 적용한다.

청소년관련 가족지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에 대해 홍보한다.

가족지지 서비스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의 능력을 지지,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필요한 경우는 가족치료를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족문제와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이 활성화되고 전문 상담요원이 양성되어야 한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의 강화, 상담소의 확대 설치 및 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부모의 전화'와 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상담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 및 복지 시설이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예방 차원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이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가족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 시설의 증설 확장도 모색되어야 한다.

2. 청소년을 위한 학교프로그램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 교육에 바른 대화법이 포함되어 한다. 가정내 청소년의 역할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언어생활의 태도와 대화 방법에 수정을 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바른 대화법을 포함한다. 일상적으로 가정에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 시간보다는 자녀가 좋아하는 간식등을 함께 만들거나, 자녀가 좋아하는 문화 행사나 놀이를 함께 하면서 행사, 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청소년기의 문제는 이전 발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잉태된다. 따라서 취업모의 국민학생 자녀들을 위해 방과 후 학교교실을 이용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지도자는 대학생으로 실습 학점을 받도록 한다.

최근 우리 나라 여성의 취업 증대에 따른 취업모의 국민학생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실시는 꼭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측에서 방과 후 교실 하나를 제공하고, 사회교육 전문요원 혹은 사회복지사 준비과정의 대학 실습생이 학습과 놀이, 간식을 담당하고 실습 학점을 취득하도록 한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한다.

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과 실업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방과 후 취미, 진로 관련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 및 실업계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컴퓨터 실습, 취미 활동 등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중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내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내용이 역할극 등을 통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교과과정에 가족의 의미와 역할, 가족관계, 부모의 태도,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청소년들 자신이 가족에 대한 역할극(role play)을 직접 해봄으로써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등 가족원들에 대해 공감하게 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문제의 대해 사회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준다.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경험을 통해 세대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참여중심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연중 20-30일 정도를 학교 이외의 기관(공공기관, 기업체, 부모의 사업체나 근로현장)에서 봉사 경험을 갖도록 하거나, 또는 환경사업 등의 단체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3. 청소년과 부모의 상호작용 증대를 위한 활동

집안의 힘든 일에 자녀를 참여시켜 협동심을 길러주고 가족성원의 일체감을 갖는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힘든 일로는, 위기상황에 함께 참여하고, 노환의 조부모님 간호, 부모님이 질병으로 편찮으실 때 간호, 집청소, 설것이 등의 집안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활동현장에 부모가 참여하여 지도, 감독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도록 한다.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단체 활동,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지도하고, 보조하고, 감독하여 집단활동 현장을 통해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한다.

청소년 단체 활동의 프로그램에 가족원이 모두 참여하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단체의 활동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의 실시는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청소년 단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의 배포는 각 지방 청소년과가 각 단체의 프로그램 내용을 수록한 종합적인 안내서를 제작하여 각 가정으로 직접 우송하거나, 반상회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4. 기 타

빈곤 청소년의 가족을 위한 공적 부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적 부조를 정책적으로 실시하여 가족이 소득을 유지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가 충족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한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정서교육 및 체력단련을 위해 문화 체육활동을 촉진키 위한 입장권 발급제도가 촉구된다.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이나 체육 시설에 대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참여 및 이용을 용이케 할 수 있도록 1인당 한 계절에 5매 정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입장권을 발급하여 지역사회 복지사를 통해 전달한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건강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홍보가 필요하다.

언론과 방송에서는 청소년을 문제 대상으로만 보고 가족과 청소년간의 문제를 강조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공익광고등의 형태로 다양한 가족의 건전한 모습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TV 드라마에서도 비정상적이고 문제를 갖고 있는 가족보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어려움 속에서도 깨끗하게 잘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청소년의 가족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지원방안이 계속 강구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문제와 욕구는 사회변동과 함께 계속 변화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장 서 론

신체적 심리적 격동기에 있는 청소년은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지원이 부족할 때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 상태에 놓이기 쉽다. 가족 구조의 해체와 기능 약화는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협하는 주 요인으로 많이 거론되어 이혼, 편부모 가족, 빈곤 가족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족의 자녀가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족환경 속에서 청소년은 심리적, 경제적 적응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특성이 청소년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이에 대한 사실적 진위에 상관없이 사회적 편견으로 확산돼 해당 청소년에 대해 갖가지 차별 대우를 함으로써 일탈가능성을 높인다(장경섭, 1991)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가족 기능의 약화 및 가족의 방향 상실이 빚어 내는 청소년의 불만과 고충이 보다 보편적이고, 적응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가족이탈 및 사회의 유해 환경에의 노출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감수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격동하기 쉬운 청소년기의 특성상,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 유형의 비행의 양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가족 분위기가 강압적이거나 부모간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고, 부모가 입시주도형의 양육태도를 보일 때(YMCA, 1991),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형제간의 경쟁이 지나치며,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등(박성수, 1990) 가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증가된다.

가족이나 부모의 중요성은 청소년의 비행, 문제행동, 정신건강 등을 다룬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과 우울성향 등을 다룬 연구(박효원, 1993: 석말숙, 1989: 원호택, 1991: 윤성립, 1990: 이연숙, 1990: 한유진, 1993: 홍대현, 1993)에 의하면, 가족의 상호작용 방식과 정서적인 분위기에 따라 부적응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의 의견 불일치가 잦고, 부모가 지나치게 바쁜 경우, 자녀의 성장 욕구와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거나 적대적이고 무관심한 방식으로 키우는 등 자녀지도 방법이 부적절할 때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한다. 또한 가족원간의 경계가 극단적으로 얽혀 있거나 유리되어 가족체계의 기능이 비효율적일 때 청소년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다고 본다.

그러나 비버즈(Beavers, 1977)의 연구 결과는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가족원간의 경계가 밀착된 가족체계와 청소년의 부적응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으며, 결속력이

약한 원심성 가족의 경우에 정신분열증, 반사회적 성격, 비행 등 청소년의 역기능적 행동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다룬 연구(김경화, 1988: 김형태, 1989: 신은혜, 1984: 이길홍, 김현수, 민병근, 1982: 최상숙, 1993: Martin, 1975: Mussen, 1979) 결과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가계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으면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포기하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엄격과 허용의 극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적개심과 거부, 신체적 체벌을 하는 경우에 자녀의 문제 행동 발생율이 높다. 또한 문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가족은 부모간의 불화가 잦고, 가족성원간에 심리적 거리가 멀어 가족의 응집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 규명 작업에 대해 시각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가족원간의 갈등, 가족원간의 유리된 경계, 적대적이면서 무관심한 부모의 양육태도 등은 부적응의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역으로 말하면,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는 자녀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바로 인식하여 주어진 사회여건 속에서 잘 적응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내어 긍정적인 자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이 전전한 의식을 갖고 생활해 가는데 건강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평판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유능감, 신체적 성숙도 등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등의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내 문제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되,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내 문제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등 앞서의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가족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가족문제의 중요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에 있으므로, 청소년의 부적응을 야기시키고 가족이탈 성향을 부추기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과 부모 및 청소년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청소년기 가족내 문제 규정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문가의 가족내 문제 규정은 부모와 자녀간의 시각 차이에 대해 보다 용이하고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가족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룸으로써, 문제가족화 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족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 지도 및 부모 교육의 기초 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장 이 론 적 배 경

1. 가족문제의 개념 정의

가족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동시에 가족에 대한 기대도 변함에 따라 그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족문제에는 가족의 발달 주기상 예상되는 문제도 있고, 예기치 않은 문제도 있다. 가족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 가족은 이를 해결하거나 저항할 힘이 적어 문제 가족화되기 쉽고, 가족 문제에 대처할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원이 있을 때, 가족 나름대로의 저항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판단이다. 다시 말해서 사건 자체의 객관적 심각성 보다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가 중요하다. 문제에 직면하는 각 가족 및 개인의 반응 여하에 따라 가족문제가 주는 위기성 정도는 다르므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좌절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가족문제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 자체는 존재하되, 가족의 질서나 규칙이 없이 혼란 상태에 빠지거나 도덕성이 결여되는 등 가족생활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결국 가족해체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 문제로 인해 개인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가족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개인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거나 가장 자아가 약한 가족원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자살이나 가출의 행위, 심한 신경증, 대인관계의 회피 등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가족문제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달리 해석되어, 아직 정확하게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사회제도나 체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개념과 좁은 의미의 가족관계상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족문제에 대한 개념 중 유영주(1984)의 분류 작업은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영주(1984)는 가족생활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문제로서, 가족 문화의 단절, 가족 가치관의 혼란, 가족의 불안정성 문제를 가족문제에 포함시키고 있고, 부부간의 문제, 부모의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노후 문제, 주부의 취업 문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가족문제를 가족내 문제와 사회적 문제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사회문제화되는 가족문제에는 이혼, 결혼 문제, 미혼모 문제, 유아교육 문제, 아동복지 문제, 노인 문제, 여성 취업 문제, 근로 여성, 기혼여성 문제 등이 포함되

고, 가족내 문제에는 부부간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 문제, 부모-자녀간의 갈등,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문제, 고부간의 갈등, 맞벌이 가족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정영순, 이명홍(1989)은 도시 빈곤가족의 사회심리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데, 가족문제를 가족 구성원의 문제와 가족관계의 문제로 나누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나누고 있다. 아버지의 문제에는 직업 문제, 과음, 성격 이상, 대인관계 문제, 신체적, 정신적 장애, 질병, 게으름, 낭비벽, 구타, 노름, 가출 등이 포함된다. 어머니의 문제에는 자녀양육 및 교육지도력 부족, 질병, 규모없는 살림살이, 구직 문제, 흡연, 신체, 성격 장애 등이 포함된다. 자녀들의 문제는 학교성적 불량,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무단 결석, 질병, 취업문제, 성격 이상, 신체, 정신 장애, 싸움, 자녀의 낭비벽, 거짓말, 가출, 흡연, 음주 등을 들고 있다. 가족관계의 문제 중 부부문제에는 성격 차이, 대화의 어려움, 배우자의 외도 및 구타, 성생활 문제, 종교 문제 등이 포함된다. 부모-자녀간의 문제에는 부모-자녀간의 기대 차이, 대화시간 부족, 의사소통의 단절, 자녀의 반항등 문제 행동이 포함된다. 형제자매간의 문제에는 부모의 편애, 형제간의 잦은 싸움, 가사분담의 문제, 형제자매간의 무관심이, 고부간의 문제에는 고부간 자녀양육의 차이, 의사소통의 곤란, 성격 차이, 경제 소유권의 문제 등이 속한다. 가족문제를 가족 구성원의 문제와 가족관계의 문제로 나누는 틀은 가족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하위 영역에 속하는 가족문제의 양상은 계층이나 가족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또한 가족의 심리, 정서적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가족문제를 악화시키고 문제해결 능력도 약화시키는 경제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러한 분류 작업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조흥식(1994)은 영향력 있는 집단에 의해 사회 가치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가족들의 현상을 가족문제로 정의하고, 현재 드러나는 한국 가족문제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가족의 경제적 부양 문제로, 가정의 빈곤 문제, 가족 구조상의 취업 여성의 증가, 가족간의 빈부 차이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핵가족화의 결과로 인한 가족문제로 주말 부부의 증가, 자녀 수의 감소, 주거 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보호 기능의 약화를 들고 있다. 셋째,

가족의 통제 능력이 약화되거나 통제 기능의 상실되는데서 오는 가족관계와 가치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잦은 이사로 인한 가족생활의 불안정성, 세대 차이 문제, 부부 불화, 부모 역할 모델의 부족, 대화의 부족, 가정폭력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네째, 결혼 가정의 증가에 따른 문제로, 자녀 유기, 별거, 이혼등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아동, 가출 및 비행 청소년 문제와 소외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족문제에 대한 조홍식의 견해는 폭넓고, 가족문제를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하고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홍주(1993)는 가족을 계급, 성, 연령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보며 이에 따라 가족 문제도 사회 구조의 모순이 반영되어 가족들과 가족원간에 차별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김홍주는 가족문제에 대한 실태를 농민의 가족문제, 도시 빈민의 가족문제, 노동자 계급의 가족문제, 중간 계층층의 가족문제, 자본 계급의 가족문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농민의 경우, 가족 해체로 인해 비동거 가족원의 증가로 인해 사회 재생산의 위기에 놓여 있고, 여성의 농업 노동 참가로 인한 여성의 역할 과중 문제를 들 수 있다. 도시 빈민의 가족문제에는 사회 재생산의 악화, 노인 부양문제, 성차별 문제가 포함된다. 노동자 계급의 경우, 가족 생활의 연속성과 물질적 기반의 취약, 육아문제, 자녀교육 문제, 가사노동과 양육을 둘러싼 성별 분업의 고착화등이 주된 가족문제이며, 중간 계층층의 경우, 부부문제, 자녀 교육문제, 노인 부양문제 등 성별, 세대별 불평등 문제, 가족 이기주의를 주된 가족 문제로 들고 있다. 자본 계급의 경우를 가족내 성별, 세대별 권위 질서가 강하게 구조화되어 있어, 여성의 존재를 남성의 예속물이나 사치품으로 간주하고, 가족간의 재산 분배와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주된 가족문제로 들고 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릴수 밖에 없는 가족문제를 다룬 이러한 분류작업은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제도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화라는 외부의 충격 속에서 가족 생존을 위한 가족 전략 차원에서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정형에서 벗어난 가족 변화의 모습을 사회 통합에 저해되는 골칫덩어리의 문제로만 파악하는 것은 문제 자체와 발생의 본질적인 메카니즘을 놓칠 수 있다는 김홍주의 주장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지적이다.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잣대로부터 벗어난 가족을 문제 가족화하는 기존의 시각으로는 다양한 삶을 포용할 만한 현실성 있는 가족 정책 및 대체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함인희와 이동원(1992)은 가족문제를 가족과 사회의 변화 속도간의 지체 현상에

서 파생된 문제로서, 사회변화 과정의 산물이며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가족이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생활의 일부분으로 보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족 주기에 따라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적응 양식이 달라지며 아울러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과 가족의 발달 과업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가족문제는 개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족 주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이들은 가족문제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번째는 사회변화에 가족이 미처 적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가족 지체로 인한 가족문제로, 가족이 사회 변화에 저항함으로써 생긴 문제나 가족이 사회 변화에 왜곡된 적응을 하여 가족의 부적응을 강화시키는 문제가 포함된다. 두번째는 억지체 현상으로 가족은 변화되어 가는데 사회 변화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지체이다. 세번째는 가족과 사회가 동시에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문제 현상으로, 이혼, 과소비, 성폭력, 가정 폭력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각은 가족문제를 가족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가족문제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기존의 가족문제를 가족과 사회의 변화 속도에 의해 설명함으로써 가족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홍주나 함인희의 주장처럼 계층에 따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기반과 대처 자원이 다르며, 개별 가족 차원에서도 가족원의 역량, 성별, 연령별 차이에 따라 가족 생활의 경험이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틀 안에 가족문제를 규정짓기 보다는 다소의 융통성을 갖고 가족문제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갈등과 대립, 가출과 이혼, 물가상승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계의 불안정성, 소비 생활의 불균형, 계층간의 상대적 빈곤의 문제 등 현대의 가족문제는 개인적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어 사회문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문제를 어느 가족에서나 경험하게 되는 가족 생활의 일부로 보고,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족문제에 국한시켜 다루고자 한다. 청소년의 정신 건강 등을 다룬 연구 결과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의사소통 부분, 그릇된 양육 태도등의 부모-자녀관계 문제와 이 관계의 주체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개인의 문제 및 가족의 경제 문제,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에 한정된 가족문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2. 청소년기 가족문제의 성격

청소년기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이유를 시작하고 자신의 독립적 자아를 탐색해 가는 시기로 가족생활 단계상 가족 기능의 점점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기존의 생활 방식으로부터의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을 요구하게 된다. 중년기인 부모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자아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는 시기로, 특히 어머니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로 인해 청소년 자녀와 노부모 세대로부터 협공을 당하며,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또한 이들은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이탈하고 분리되어 가는 것을 지켜 보면서 당혹감과 정서적 혼란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 자녀의 경우도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경험하려 하고, 자아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자아정체감의 확립을 위해 애쓰고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들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압력을 느끼고 부모나 기성 세대와 기성 사회 제도 등에 저항하는 시기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 및 가족관계면에, 급격한 발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의 가족생활상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하지 않거나 기존의 관계에 고착하려 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은 생리적 발육과정과 인격 형성 과정에 있어 그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비타협적이고 현실 도피와 관념 세계로의 몰입 경향이 현저한 시기로 예측하기 힘든 사태로까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한다는 사실은 가정적 측면에서는 가정의 기능 상실을 의미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서구화에 따른 핵가족이 가져다 준 개인주의와 사회적 무관심, 물질주의 팽배에 의한 전통적 가치관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에(조결자, 조미영, 김윤희, 1986)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가족문제 중 가족체계의 특성, 즉,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 및 적응성 등과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부모의 문제 행동에 한정시켜 청소년기 가족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가족체계의 특성

체계론적 접근에서는 가족을 여러 개의 상호 연결되는 하위 체계에 의해 형성된 복합체로서 보고 있다. 각 하위 체계의 목표, 기능, 감정상의 분위기등 내부 관계가 고도로 긴밀하여 한 부분의 변화는 체계의 다른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체계와 구분이 된다.

개인의 문제 행동을 포함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가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올슨 등(Olson, MaCubbin, Barnes, Larsen, Muxen & Wilson, 1982)은 건강한 기능을 하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응집성과 적응성 차원에서 진단하고 있다. 응집성은 개인이 자신의 가족 체제와 연결되고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설명해 주는 가족의 역동적 과정이다. 즉,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에 기초를 둔 심리적, 정서적 유대이며, 한 사람이 가족체제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자율성 정도를 말한다. 응집성은 가족의 공동 시간과 개인의 사적 시간 허용 정도와 가족의 공동 공간과 개인의 사적 공간의 허용 정도, 가족의 전체 오락과 개인의 활동 보장, 의사결정 유형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Farrel & Barnes, 1988). 올슨 등에 의하면 가족 내부의 경계가 지나치게 개방적이거나 폐쇄적인 경우, 공동의 시간만을 중시하고 개인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거나 가족 공동의 시간과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가족내 의사결정을 개인이 결정해 버리는 경우는 건강한 가족으로 볼 수 없으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응성은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가족의 능력으로서, 주요 문제는 어떻게 체제가 본래의 응집력과 통합력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가이다. 즉, 가족 체제가 유연하고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가족체제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그의 권력 구조, 역할 관계,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가족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 리더쉽의 유형, 부모의 자녀 훈육방식, 가족성원들간의 협상 능력, 역할 확립 및 역할 분담, 가족규칙의 명시성 및 융통성으로 나누어 파악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가족은 리더쉽이 없고, 방임 또는 매우 관대한 양육태도, 문제해결 능력이 빈약하고, 규칙이 없거나 너무 많거나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가족으로, 올슨은 이러한 가족을 혼돈된 가족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비버즈동(Beavers & Voeller, 1983)은 가족체계를 스타일 차원과 건강/유능성 차원으로 나누어 역기능 가족과 기능적 가족을 구별짓는 각기 다른 질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유능성은 가족체계의 전반적인 체계적 기능을 말하는데, 유능한 가족은 체계내의 하위 체계간의 분화가 잘 이루어지는 질서있는 가족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융통성이 높다. 기능 수준이 낮은 가족은 폐쇄적 가족 체계로서, 가족 경계 밖의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고, 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족체계 내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Goldenberg & Goldenberg, 1983). 스타일은 가족간의 상호작용 양식으로 한 사람이 가족내에서 경험하는 자율감의 정도로 파악된다(Hanks, 1989). 가족내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스타일 차원은 보웬(Bowen)의 자아분화 개념, 미누친(Minuchin)의 경계선 개념 및 가족 기능에 대한 설명과 매우 유사하다. 즉, 가족의 스타일 차원과 가족체계의 기능 수행과는 곡선적 관계를 보이고 있어, 가족내 구심성과 원심성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가족 기능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이들 학자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유능성 차원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일치되지 않는다. 비버즈는 가족의 유능성 차원과 가족체계의 기능 수행과는 직선적 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적응성 차원과 가족의 기능과 곡선적 관계를 갖는다는 올슨 등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비버즈에 의하면 최상의 기능을 지닌 건강한 가족은 융통성 있는 가족 구조와 역할,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는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분명한 경계, 권력의 공유, 일관된 부모의 연합, 친밀감, 가족 구성원의 자율의 지지와 더불어 구성원간의 관계에 만족을 느끼는 가족이다. 반면, 심한 역기능적인 가족체계는 빈약한 권력 구조, 불분명한 경계, 일관성없는 의사소통의 특성을 보이며, 합의에 의한 해결 능력이 없고 변화에 대한 부적응을 보이는 등 일상적 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말한다. 특히, 가족으로의 구심력이 거의 없는 역기능적 가족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거부적이며 가족의 조직이 불안정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역할과 경계가 불분명하며, 가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없고 비난, 위협, 말다툼 등이 잦아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녀들은 가출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가족으로의 구심력만을 강조하는 심한 역기능적 가족에서는 부모의 연대성이 취약하여 지도력이 없고, 자녀들을 자주적으로 키우지 못하므로 자녀는 올바른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가족 경계는 폐쇄적이어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며 변화

에 대한 적응력이 없다.

가족체계의 특성과 기능과의 관계에 대한 올슨과 비버즈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 입장을 고려하여 청소년 비행, 정서적 불안정등 문제 행동 발생과 관련이 많은 가족체계의 특성을 선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청소년기에는 감수성이 높아지며 흥분하기 쉽고 과격한 자기 주장이나 반항, 기분의 변모성과 조폭성으로 인해 주위의 대상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공격적 태도를 취하기(박소영,1991) 쉽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적 욕구가 가족내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가족 밖에서 대안을 찾을(유영주, 1994) 가능성이 많고, 사회의 유해 환경에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가족체계의 특성을 다루는 것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 예방을 위해 의의있는 작업이다.

청소년기 가족체계의 특성을 다룬 관련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간의 심리적 유대가 강하고, 가족이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경우,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다(Handel, 1965). 석말숙(1989)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많이 드러나는 가족의 역학 구조는 가족원간의 갈등이 많고, 하위 체계간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혼란스럽거나 부모와 문제 자녀와의 세대간 연합 형성, 문제 자녀의 희생양 역할, 부모의 상호 지각 차이 등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가족이 설정한 목표나 가치 규범을 준수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거나 가족성원간에 심리적 거리가 멀어 서로 수용적이지 못할 때, 청소년은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은혜(1984)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간의 유대감, 소속감은 부족하면서 부모가 지배자로 군림하려 할 때 청소년의 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을 다룬 전재일, 양점도(1991)의 연구 결과에서도 비행 청소년의 경우 가족에 대한 일체감도 없고 연대의식도 회박하며, 개인의 이해 관계만을 중시하며, 가정은 잠시 유숙하는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희영(1988)의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태도, 가족의 응결력, 친애, 자율등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예언하는데 주요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가족의 응결력이었다. 홍성애(1988)의 연구 역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고, 김형태(1989)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물리

적 조건이나 부모의 지위보다도 자녀를 대하는 과정적 환경으로서 기본적인 태도나 응집력, 상호 인간관계의 질 등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가출 가족과 비가출 가족을 비교 연구한 벨과 벨 (Bell & Bell, 1982)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가족은 적응성이 낮은 혼란스러운 가족, 극단적인 가족, 이탈 가족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YMCA에서 행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연구(1991) 결과에서도 가출 청소년의 47%가 가정분위기에 대해 불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경우가 8.0%, 형제나 부모 사이가 나쁘다는 경우가 12.4%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가정이 상호의존과 심리적 유대로 형성되는 응집성과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안정과 변화의 역동성을 상실함으로써 청소년의 가출이 비롯된다고 보았다. 장수환(1993)의 연구에서도 가출의 원인 중 가족간의 갈등이나 경제적 요인 등 가정적 요인을 지적한 경우는 60%에 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 속의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에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주어진 사회 여건 속에서 잘 적응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내고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정립할 수 있고, 문제 행동의 발생을 제한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족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가족간의 결속력이 없을 때 청소년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가출 등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된 가족체계의 다른 특성으로는 가족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 가족간의 불화,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들 수 있다.

가족간의 불화는 정서적 유대감 영역에서 함께 다루어 질 수도 있으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 치명적이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형제자매 관계는 사랑과 관심을 공유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개별화와 정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지만, 형제 자매간에 무관심하고, 적대적 관계를 보이는 경우,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발생율이 높다(Mussen, Conger, Kagan, 1980). 또한, 부모의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갈등 상태일 때 부모로서의 만족스러운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고 자녀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결혼생활의 불행, 정서적 미성숙성으로 인한 불안정성 등으로 자녀에게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이게 된다(박소영, 1991). 이러한 가족 환경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자녀는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가족내 희생양이 되기 쉽고 정신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가정 생활의 기초인 경제적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존을 위해 가족원 특히 자녀에게 희생을 요구하며, 실업, 물질적, 재정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며, 악순환되어 인간발달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며, 청소년은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문제 행동을 한다(원호택, 1991; Perry & Bussey,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의 특성으로 정서적 유대감, 적응성, 가족간 불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다루고자 한다.

2) 역기능적 의사소통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와의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부모의 이해와 지도 및 대화를 필요로 한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간의 의견 대립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부모-자녀간의 대화는 부모-자녀간의 가치, 감정 전달을 통하여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며 개방적, 감정이입적, 지지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청소년기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민하영, 1991),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관계 확인에 따른 자신감이나 안정감의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조은경, 1993).

의사소통은 문제 해결의 이상적 방법이지만, 오히려 의사소통을 잘못해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며 혼돈되고 불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며 다투는 식의 어투를 사용하거나(Haley, 1976)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Olson et als., 1982).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사티어(Satir)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자신의 욕구를 숨기고 다른 사람의 견해에 무조건 동조하는 회유형 또는 아부형,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비난형, 정확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면서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타산형, 상황에 맞지 않고, 대화의 쫓점을 흐리게 하는 산만형 등으로 나누었다. 어떠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던 간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자존심이 낮기 때문으로, 자신이 상처받지 않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다.

비앵브뉴(Bienvenu, 1970)는 비효율적 의사소통에 관계되는 요인을 잔소리, 예의 바르지 못한 태도, 솔직하지 못한 태도 등을 들고 있다(이정순, 1982).

호킨스, 위스버그와 레이(Haukens, Weisberg & Ray, 1980)는 대화 주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노출 정도와 정서적 감정의 노출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차단형은 자신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단지 상대방과의 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의사소통 양식이고, 억제형은 상대방과의 충분한 의미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해 폐쇄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어로 표출하지 않으려는 형태를 말한다. 분석형은 자신의 신념과 사고에 대해 명백하게 언어로 표출하며 순간적 감정에 개입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의사소통 양식이며, 친숙형은 정서적으로 풍부한 상태를 보이며 자신의 내적 사실을 명백하게 개방적으로 언어를 통해 표출하며 정서적으로 강한 개입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친숙형을 제외한 세 가지 의사소통 유형은 기능적이라고 볼 수 없다(이정순, 1982).

송성자(1985)는 사티어, 헤일리 등의 분류를 참고로 하되, 한국인의 가치관과 가족적 특징을 반영하여 한국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4가지로 나누었다. 복종과 인내를 요구하는 권위지향적 의사소통, 융통성이 부족하고 비사교적인 소심지향적 의사소통,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 불성실지향적 의사소통과 권위자에 대한 의존과 자기 희생을 하는 희생지향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분류 및 명명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고, 혼돈된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다룬 연구는 주로 의사소통의 주제, 시간, 대상에 대한 조사가 많고, 자녀의 성별, 부모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 등을 다루었다.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이 높고 아버지가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김진희, 1989),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김순옥, 1990)에 부모자녀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결과가 제시되다. 그러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장호선, 1986)는 결과도 제시되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의하면,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청소년의 문제 행동은 적게 발생하고(정명희, 1987),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으며(김진희, 1989),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인 경우 자녀의 문제 행동이 증가하는 것(김경화, 1989)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란형, 평가형, 회유형, 비난형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중의미의 불일치형 의사소통은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녀에게 갈등과 불안을 유발시키고 문제 행동을 유발시키며(박성수, 1988; 김경화, 1993),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발생률이 높았다(이길홍, 김현수, 민병근, 1982).

연진영(1992)은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이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적대적, 감정적 폭언은 자녀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고 나아가서는 반사회적 행동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윤진(1994) 역시 가정내에서 부모가 별 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하는 언어적 폭력이나 체벌은 그 자녀로 하여금 공격적인 비행, 범죄자가 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및 부적응은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의 몰이해나 간섭에 민감하여 불안과 고민이 많아져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심하며 부모의 훈육도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이순희, 1985).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주요한 방법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언어적 대화를 들 수 있으며, 이로써 문제 행동의 유발도 완화시킬 수 있다(이춘재, 1988)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여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 따라서 청소년기 가족의 특성상,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부모의 문제 행동

부모는 자녀에게 모방과 동일시의 대상일 뿐 아니라 훈육을 통해 자녀의 행동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이루어 가는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박소영, 1991). 부모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모습을 자녀에게 보

여주고 어떤 양육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부모가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모델링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가족이 청소년의 적응을 도와주기 보다는 부적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를 부모의 문제 행동으로 일차적으로 간주한다. 문제 행동은 규정하기가 어렵고, 학자마다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문제 행동을 이상 행동(abnormal behavior)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거나 주로 병적이나 부정적인 경우를 나타내기도 하며(김경희, 1993), 욕구 충족이 방해받을 경우 개체가 환경에 따라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융통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상 반응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정원식, 1977).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문제 행동(안창일, 1983)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문제 행동은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많이 사용했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가면서 각종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부적응이나 장애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안창일의 개념 정의를 수용하여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해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합의한 부모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부모의 문제 행동으로 보며, 아버지나 어머니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 가치 등과 그릇된 양육태도가 포함된다.

어머니나 아버지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폭음을 하거나 도박에 탐닉하거나 나약한 면, 외도, 질병, 게으름, 낭비벽, 구타, 충동적이고 사려가 깊지 않고 즉흥적이며 정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이시형, 1994; 정영순, 이명홍, 1989)등이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펄로이(Pumroy 1966)는 부모의 거부적, 과보호적, 과허용적, 규율적 양육태도를 문제가 되는 양육태도로 보았다. 자녀에게 실제로 공공연하게 적대적으로 대하며, 일방적인 부모의 감정대로 자녀에게 대하는 경우를 거부적 태도로 보았고, 과보호적 태도는 자녀에게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동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자녀를 대신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태도를 말한다. 과허용적 태도는 자녀지향적이어서

자녀가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하게 해 주는 태도를 말한다. 규율적 태도는 아동에게 상당히 엄격한 복종을 요구하며, 자녀가 능력 이하의 행동을 보일 때 벌을 가해서 빨리 성숙하도록 강요하는 태도를 말한다.

오기선(1964)의 아버지와 자녀관계 진단점사에 의하면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간섭, 복종적 태도, 모순, 불일치 태도를 부모의 그릇된 양육 태도로 간주하고 있다. 거부적 태도는 자녀에 대한 무시 방임, 무관심, 불신용등의 소극적 거부와 체벌 학대, 굴욕, 가혹한 요구, 보호 양육의 책임 방조의 적극적 거부가 포함된다. 지배적 태도는 엄격형과 기대형으로 구성되고, 간섭은 세밀한 데 까지 참견하고 돌보아 주고 되도록이면 도와주려 하거나 지시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복종적 태도는 지나친 사랑으로 자녀를 옆에 두고 시종드는 애정적 복종과 모든 권한을 자녀에게 주고 부모는 모든 것을 지拂해서라도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맹종형 복종으로 나눌 수 있다. 모순, 불일치 태도는 자녀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 어떤 때는 문책하고 금지하면서도 어떤 때는 모른 체 하는 일관성이 결여된 모순적 태도와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양육태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를 말한다.

장하경(1985)은 베커(Becker)의 견해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허용-제한, 냉정-온정, 과잉간섭-방임의 세 요인으로 추출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모가 신경과민적, 방임적, 과보호적, 권위적 태도를 취할 때 자녀는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러한 양육태도를 문제의 양육태도로 보았다.

이숙(1989)은 문제가 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부모내의 양육태도의 불일치성을 들고 있다. 즉, 자율과 통제 차원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자녀에게 자립적 사고의 고무, 평등주의적 대우를 해 주는 반면, 소유와 보호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무관심과 무시를 나타내는 반면에 간섭을 하는 이중적 구조를 보여 주는 양육태도의 불일치성은 자녀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적응상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갑숙(1991)과 조성숙(1994)은 자녀를 문제아로 만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와 학대를 들고 있다. 무조건적 보호와 베풀음만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부모야말로 자녀를 문제아로 키우는 것으로서, 자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인생을 유도하여 인격적 성장을 정지한 어린 아이로 머물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은 배우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 보다 사회적으로 더 쉽게 용납되므로,

부모자신의 내적 감정에 대한 왜곡 반응으로 자신의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구타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김갑숙, 1991), 이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폭력 행위를 관찰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폭력 행위의 기술을 습득하고 폭력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감퇴되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폭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자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부모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안정성이나 독립성이 결여되기 쉽고, 또래로부터 사회적 수용도가 낮고 자기존중감과 인지양식에 부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황혜자, 1984 ; 장하경, 1985 ; 송미애·조복희, 1985 ; 한말애, 1985)를 통해 확인된 바이다. 김경연(1989)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과보호적 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책임감, 사회성, 안정성, 사려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성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나 비행 등에 영향을 미치며 연구결과 역시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뮤센(Mussen 1979)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일 때 자녀의 문제 행동 빈도는 많아진다고 보고했고, 퍼킨스(Perkins 1974) 역시 지배와 복종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간 양육 불일치는 자녀의 문제 행동을 유발하고 자녀로 하여금 능동적인 행동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며, 사회적 위축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길홍, 김현수, 민병근(1982)과 최상숙(1993)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며, 부모와의 접촉이 적고 자녀에 대한 애정이 적은 경우 청소년은 문제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했다. 마틴(Martin 1975)은 부모가 엄격과 허용의 극단성을 지니고 적개심, 거부, 권위적 주장, 신체적 처벌을 하는 경우, 자녀는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고, 자기조절이 낮고 공격적 행동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특성 변인에는 경제적 수입,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 실직, 부부 갈등과 같은 가족내 스트레스 요인도 함께 작용하는 것(윤진, 1994)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약물 남용, 오용 실태에 대한 국내 보고서(한국문화연구원, 1989)에 의하면 부모가 화목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적을 때 청소년은 약물사용 등의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영(1992)의 연구에서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은 대체로 가정 불화, 부모의 이혼, 부모의 죽음이나 만성 질병, 부모의 거부적 태도나 과잉보호, 육아상의 문제, 일관성 없는 훈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윤성림(1990)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생각을 하는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받는 보호와 애지의 정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계를 다룬 연구(유영주, 1991)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가 결핍되어 있고, 자녀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을 때, 학생의 학업 성취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또한 부모의 성적에 대한 과잉 관심은 학생 스스로 공부해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하기 보다 시험 결과에 따르는 부모의 외적 보상(상,벌)을 예상하게 되어 학생들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출을 다룬 장수환(1993)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구타, 편애, 간섭,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보이거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정, 음주, 지나친 완고함 등 부모가 술선수범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거나 가족간 갈등 및 경제 문제가 심각할 때, 청소년 가출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했다. 박정규(198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가출 동기를 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이혼, 재혼, 계부모 학대등이 16%, 가정불화 11.3%, 과잉 기대 간섭이 5.1%, 부모 유기 2.9%, 생활고 17.9%, 취업으로 인한 경우가 9.3%라고 밝히고 있다. YMCA의 연구(1991)에 의하면 가정에서 가출 충동을 느끼게 되는 때는 부모가 이유도 듣지 않고 무작정 야단을 칠 때 31.2%, 집에서 나의 존재를 전혀 알아 주지 않을 때 18.2%, 과잉 보호와 간섭이 7.1%,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할 때가 19.2%로 나타났다. 가정에 대한 불만 가운데 부모가 나를 이해 못한다는 40.0%,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경우는 29.0%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비행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 역시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호프만(Hoffman 1986)은 한국의 청소년 비행에 대해 연구한 바, 가정에 관련된 변수, 즉 부모가 지나치게 바쁘거나 결손 가정, 부적절한 자녀에 대한 감독, 자녀의 물질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모의 무능력 등이 한국의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장선경(1988)은 아버지의 간섭, 어머니의 적극적 거부, 엄격형 지배, 모순적 태도와 청소년 비행과 상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원호택(1991)의 연구에서도 범죄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적대적이고 무관심한 방식으로 양육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정숙(1991)은 부모의 편애가 부모에 대한 적의나 공격심을 유발하게 되고 절망감, 불안정감의 동인이 되어 청소년기에 있어서 거친 반항과 비행의 직접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기 가족문제 범주에 포함된 하위 영역중 부모의 문제 행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련이 있고, 특히, 어머니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 1989; 이진숙, 1982). 중류층의 부모들은 자녀의 요구와 충동에 더 관대한 편이며, 권위적으로 통제하는 태도가 낮고,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는 아버지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라고 했듯이(Hoffman, 1974), 취업모 중 교육정도가 낮은 경우, 직업 자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작업 환경이 쾌적하기 어렵고, 경제사정상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생활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자녀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연령, 자녀의 성별, 형제 수와 부모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의하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이숙, 1989; 이수연, 1985; 심영현, 1981; 한종혜, 1980; 이은수, 1985). 어머니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은 경우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외동이나 형제 수가 많은 경우에는 부모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느끼거나 자녀에 대한 의존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족문제 하위 영역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이리라 예상되지만,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지역별, 교급별에 따른 부모의 문제행동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부분적으로 도시의 자녀가 농촌의 자녀보다 부모를 더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하며 신체적 훈육을 적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연구(마송희, 1979)가 있는가 하면,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오성심, 이종승, 1982)도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화의 정도나 중학생 고등학교생간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가족문제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부모 세대에 비해 심신이 여리어 자신을 스스로 보호, 방어하기 어렵고, 가족문제가 주는 장기적 압박에 의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기 가족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기 가족문제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유발시키는 중요 요인의 하나이다. 특히,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 적응성,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의 가족문제에 대한 노출 정도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부적응을 완화시키고, 청소년기 가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점을 시사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사회 전반에 대해 불만과 불신의 골이 깊은 시기이다. 물질주의, 감각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가는 현대 사회내에서 자신이 점유한 가족에 대한 불만과 빈부의 격차 등에 대해 회의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시기로(박성수, 1988),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지각하기 쉬운 실업계 학생과 입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인문계 학생의 가족문제에 대한 지각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리라 예상된다. 고등학생의 꿈, 이상을 살펴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문계 학생은 제도나 교육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가를 절실히 느끼면서 그러한 제도가 좀 더 개선된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지만, 실업계 학생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지 못함을 그리워하면서 장애가 되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사회를 꿈꾼다고 한다(안정남, 1986).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현실 사회에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평등 태도를 지니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기 가족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아상, 가족 이탈 성향과 사회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3 장 연 구 방 법

1. 연구문제와 연구의 틀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학업에 대한 부담 등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많은 시기로,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성인으로의 지위 변화가 용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성향등으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가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청소년의 가족 이탈을 막고 사회적 지원 체계를 조성하여 청소년 및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확립에 있다.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 중, 가장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가정환경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가정환경의 하위 영역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명 작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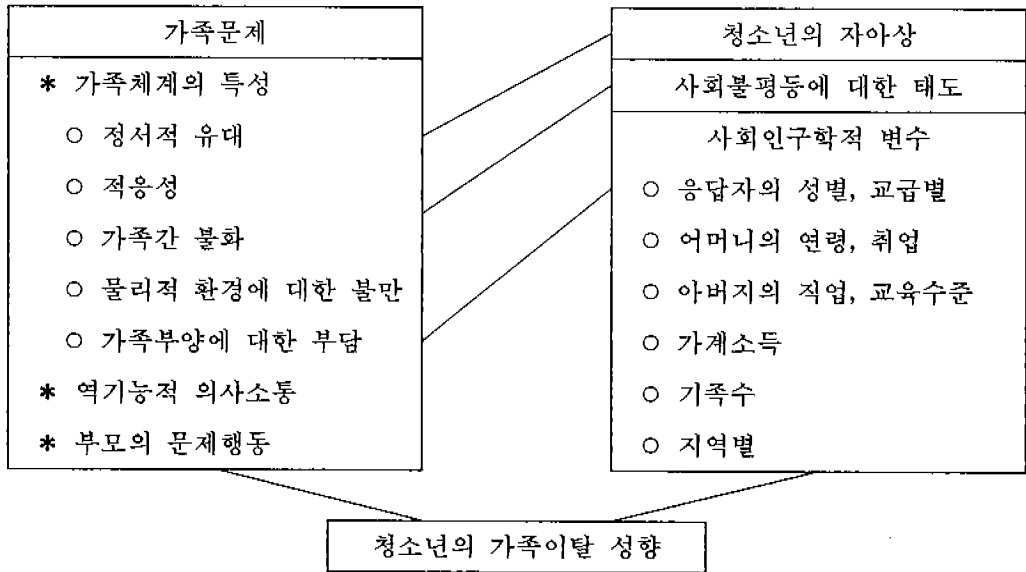
청소년기는 가족 뿐 아니라 청소년 자신이 인식한 자아상과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지닐 경우 성격적인 부적응을 보이고 이러한 부적응이 소외와 무규범적 자아를 촉발시키고, 비행의 원인이 되므로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상은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 역시 서로의 느낌을 공감할 수 있고, 삶의 과정에서 봉착하는 문제를 비슷한 처지에서 비교하면서 상의할 수 있다(전병재, 1991)는 점에서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력을 갖는다. 또한 급격한 물질주의와 감각주의가 팽배해가는 가운데 가족 지위에 대한 불만과 빈부의 격차등에 대해 반항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청소년기는 주도적인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와 같이 청년기 발달상의 특성과 가족, 또래,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속에서 청소년의 적응은 복잡하고 더욱 어려워진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 문제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청소년의 적응 지원 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으므로, 가족문제와 청소년의 자아상,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및 가족이탈 성향과의 관계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련의 작업을 통해 청소년의 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지도 및 부모 교육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틀〉



이상의 연구 틀 아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지적한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된 우리 사회 일반의 가족문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응답자의 성별, 교급별, 지역별, 가족 수, 어머니의 연령, 취업, 아버지의 직업, 교육수준,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와 사회심리학적 변수와의 관계는 유의한가?

3-1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와 청소년의 자아상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가?

3-2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와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가?

3-3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와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변수의 측정

- ① 청소년의 성별 - 남 여 두 집단으로 나눈다.
- ② 교급별 - 중학교 2학년과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나누었다.
- ③ 아버지의 교육수준 - 국민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 ④ 부모의 직업 -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생산노무직, 서비스직, 가내노동, 농업 어업 및 광업, 소방원 경찰관등 9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직종에 따라 분포된 수가 적어 전문직과 관리직을 합하고, 생산노무직과 가내노동을 묶고, 사무직과 소방관, 우체부 등을 합하고, 서비스직, 판매직, 농업, 어업 및 광업 등 6집단으로 구분했다.
- ⑤ 가계소득 - '94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과 봉급 생활자의 소득을 참고로 하여, 평균 소비액 이하의 가계소득을 지닌 경우인 70만원 이하인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인 집단,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인 집단,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인 집단, 200만원 이상인 집단 등 6집단으로 나누었다.
- ⑥ 자아상 -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갖는 자기상으로, 8문항에 대한 응답치를 합한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했다.
- ⑦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 8문항의 응답치를 합한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했다.
- ⑧ 가족이탈 성향 - 4문항에 대한 응답치를 합한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했다.

3. 표집 및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시키는 가족내 문제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 및 대안을 알아 보고자, 청소년의 생활에 대해 이해가 많은 청소년관련 상담 전문가와 교수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청소년 생활 문화의 바른 정착을 위한 건전한 가족 환경의 제시에 목적이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문제 행동과 전반적인 가족문제

를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지역에 속한 중고등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모자녀관계를 살펴 본 선행 연구들은 부모나 자녀 중 일방의 지각을 통해 그 관계상을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사람들의 행동이 상호 작용하는 상대방의 실제적인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상황을 어떻게 정의 하는가에 의해 혹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전제에 기인하여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중고등학생 모집단의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지역권역별 비율을 계산하여 할 당 표집을 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의 평균적인 값에 관심을 두기 보다 각 지역간 문화적 차이가 심하고 성별 차이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가족 문제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이 있고, 청소년의 가족이탈 예방 및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성별, 지역규모 및 지역권역별 분포를 보다 중시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47개 학급을 선정하였다(그림 1 참조). 학급당 학생 수가 고르지 않아서 남학생 24학급과 여학생 23학급을 선정했고, 서울시의 경우 10학급, 직할시의 경우 12학급, 시 지역은 14학급, 군 지역은 11학급이다.

4. 조사도구의 구성

청소년 관련 전문 상담가와 교수를 대상으로 사용된 조사도구는 개방형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는 청소년기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와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시키는 가족내 문제를 묻는 문항과 청소년 문제 행동을 예방,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은 개괄적인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응답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현장에서 청소년을 접하고 있는 전문 상담가들이 보는 대안 및 정책 제시는 강력하고 시급한 처치일 수 있다는 점에서 2문항을 구성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된 조사도구는 총 13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에는 문제가 되는 가족체계의 특성에 관한 문항 35문항과 부모의 문제 행동에 관한 52문항이 포함된다. 이외에 가족이탈 성향 정도를 측정하는 4문항, 사회불평

등에 관한 8문항, 자아상에 관한 8문항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관한 2문항,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가족문제 규명에 관한 1문항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다룬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가족체계의 특성 척도

가족체계 특성 척도는 울슨, 렛셀, 스프랭클의 FACES II, FACES III 척도와 비버즈의 SFI(Self-Report Family Inventory) 척도를 중심으로 문항을 수집하였고, 이외에도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간 불화에 대한 문항을 관련 연구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지원체계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가족 상황을 측정하고자 한, 이 척도는 모두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자료수집 결과 조부모의 생존율이 적어 조부모와 부모간의 갈등을 다룬 3문항을 제외했다. 각 질문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질문 내용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 응답의 점수를 재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의 틀에서 밝힌 가족체계 특성의 하위 영역과 가장 유사한 요인 구조의 탐색을 위해 총32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했다. 그 결과 요인 부하치가 .3 이하로 낮고 각 요인에 적절히 부하되지 않은 5문항은 삭제하였다. 본 연구의 틀과 가장 유사한 요인분석은 6개 하위 영역의 요인 구조로, 전체 분산의 53.8%를 설명한다. 본 연구의 틀과는 달리, 부모간의 불화나 형제자매간의 불화가 각각 다른 요인으로 나뉘었

가족체계 특성 척도의 구성

하 위 영 역	특 성
정서적 유대	가족간의 존중, 신뢰, 관심, 만족감
적응성	가족원간의 협상 능력,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 부모의 훈육방식, 리더쉽 유무
가족간 불화	형제자매간, 부모간의 갈등 및 폭력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	열악한 경제 사정, 주거공간에 대한 불만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 경제적 부담

으나, 각 요인의 문항 수도 적고, 두 요인을 함께 묶어서 가족간 불화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5요인으로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정리된 총 28문항의 가족체계의 특성에 관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89이다.

2) 부모의 문제 행동 척도

부모의 문제 행동 척도는 이숙(1988), 장하경(1985), 오기완(1984), 이원영(1984), 최경숙(1992)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유발하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부적절한 양육태도의 문항을 수집하여 문항 선별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본보기 역할을 못하는 경우, 자녀에게 그릇된 가치를 전달하는 경우, 자녀양육시 부모의 언행 불일치 등의 모순적 태도를 보이거나 지나치게 허용적, 간섭적, 강요적, 무관심한 양육태도 등 5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문제 행동 척도의 구성

하 위 영역	특 성
무관심	자녀의 심리, 신체 상태에 대한 무관심, 부모역할 수행
모순형	부모자신의 언행 불일치, 가족규칙 적용상의 일관성 부재
간섭형	자녀의 생각,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여
형식주의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 완벽주의
탐닉적 행동	일중독증, 화투나 술 등에 취해 있는 모습
익애형	어린 아이 취급하거나 무엇이든 갖거나 할수 있도록 지나치게 허용
과잉기대	자녀의 능력 이상의 과도한 기대
거부형	부모의 감정적 언행, 자녀를 귀찮아하는 태도
편견	특정 자녀의 편애, 성별에 따른 차별, 타자녀와의 비교
부정적	출세지향적 가치 강조, 공부나 결혼 지상주의적 사고,
가치전수	가족이기주의적 사고 강조
강요형	부모의 전제적 행동 — 의사결정, 부모자녀간 의견일치, 엄한 태도

전형적인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을 파악하기 위해 명목 척도로 구성하여 아버지만의 모습인 경우, 어머니만의 모습인 경우, 두분의 모습인 경우, 두분의 모습이 아닌 경우로 나누었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 문제 행동에 노출되는 정도를 알아 보고,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에게 모두 해당된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주고,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 경우에 0의 값을 주었다. 따라서 부모의 전체 문제 행동은 50문항의 값을 합하여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자아상에 대한 척도

자아상에 대한 척도는 일반 자아개념에 근거하여 김미숙(1989), 이희숙(1984)과 강완숙(198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문항을 정리하였다.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로서 주변의 환경적 강화와 중요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 발달의 영향과 학교, 또래, 가족의 영향 등에 따라 자신에 대한 지각을 달리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을 자신의 능력, 위치, 역할 등에 대한 지각과 개념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기상으로 보고, 척도 구성을 학문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사회 자아개념과 정서 자아개념으로 나눈 송인섭의 견해를 좇아 관련 연구의 문항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이 자아상에 대한 탐색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관련성 탐색에 있으므로 8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했다. 질문의 내용에 긍정, 부정의 문항이 함께 있어 응답치의 점수를 재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73이다.

4) 사회불평등에 대한 척도

청소년기는 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로서, 경제 성장과 물질위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팽배해가는 사회계층의 격차에 대한 지각은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 현상은 구성 집단간에 또는 사회 구성원들간에 심리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회문제로 현 사회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 사회에 대한 위상을 가늠케 하는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다(이순형,1992).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가 실제로 상향 이동을 허용하는 개방적 사

회인가와 개인이 그러한 사회로 지각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미래에 획득할 지위가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믿을 때 청소년들 자신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갈 명분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상황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지각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체념주의적 제충 의식이 내면화될 가능성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을 보이는 등 패배주의적 사고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순형(1992), 권이종,김문조(1992), 박성수(1991), 김문조(1990)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불평등에 대한 척도를 빈부나 학력에 대한 차이, 성공에 대한 지각 등을 묻는 8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질문 내용에는 긍정, 부정의 문항이 함께 있어 응답치를 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평등에 대한 지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68이다.

5) 가족이탈 성향에 대한 척도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의 가출 성향을 알아보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의 가족문제에의 노출은 다름으로써, 문제 가족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족의 병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족이탈 성향만을 다루는 만큼, 이에 대한 측정은 4문항으로 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이탈 성향이 높은 것이며, 이에 대한 신뢰도 계수 α 는 .79이다.

5. 자료모집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1994년 4월 14일에 총 135부가 발송되었고, 5월 20일까지 우편으로 반송된 자료는 총 41부였으며 이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삼았다.

청소년기 가족문제에 대한 설문 조사는 1994년 6월 11일 부터 13일 까지 52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시에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 가운데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수정했고, 변별력이 문제가 되는 문항을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130문항의 설문지에 대한 본조사는 1994년 6월 25일 부터 7월 21일 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진과 임시 연구원 1인이 직접 중고등학교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질문지를 배포한 후,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을 하여 질문지를 회수했다. 배포된 질문지는 총 2392부였는데, 2334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 기재하여 신뢰할 수 없는 69부를 제외하고 226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삼았다.

6. 자료분석방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일차로 내용분석을 하고, 빈도분포를 산출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별로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했다. 부모의 문제 행동에 관한 응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포, 평균, 표준편차를 구했다.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문제 및 가출성향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r , t 검정, 일원, 삼원 변량 분석을 하였으며,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장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서 표집한 중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7.02세이며, 남자는 50.4%이고 여자는 49.6%이다. 전체 응답 청소년을 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35.0%, 인문계 고등학생은 45.3%이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19.7%이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시 22.2%, 직할시 25.6%, 시 지역 34.6%이고 군 지역이 17.6%이다.

조사대상자의 가족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제 수는 평균 2.87명이며 형제가 없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8.8%이다. 조사대상자의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7.22세이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3.20세로 4세 정도 차이가 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3.2%로 가장 많고 대학교 졸업 이상은 24.4%에 이른다.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9.5%, 중학교 졸업이 30.2%, 국민학교 졸업이 19.6%, 대학교 졸업 이상 10.7%로 아버지의 교육수준보다 낮다.

아버지의 직업은 생산노무직 종사자가 22.9%로 가장 많고, 사무직(19.4%), 농업(15.8%), 판매직(15.0%) 순으로 많았고,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는 각각 9.6%, 9.7%였다. 취업 중인 어머니는 전체의 46.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 및 관리직 종사자는 전체 어머니의 3.0%에 불과하며 판매직, 농업 종사자의 비율은 각각 14.3%, 10.0%에 이른다.

응답자의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79.1%이고 확대 가족이 20.9%이며, 평균 가족원 수는 4.58명이다. 가계의 월평균 총소득은 50만원 미만인 4.5%를 차지하고 300만원 이상이 7.0%에 이른다.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인 경우는 9.0%이고,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9.0%에 달하며,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28.7%,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0.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11.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교급별로 알아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 (m=2,265)

변 수		중학생	인문계고등학생	실업계고등학생
성별	남	52.9	52.5	41.3
	여	47.1	47.5	58.7
거주지역	서울시	25.5	19.0	23.6
	대도시	25.0	19.6	40.2
	중소도시	37.4	37.3	23.6
	군	12.1	24.0	12.6
용돈	5,000원이하	19.7	5.8	10.9
	6,000~10,000원	31.8	12.3	10.0
	11,000~15,000원	21.0	7.9	8.0
	16,000~20,000원	16.3	21.3	13.5
	21,000~30,000원	9.9	25.0	22.3
	31,000원이상	3.3	27.7	33.3
아버지 연령	40세 이하	13.9	1.9	3.7
	41~45세	46.6	25.9	27.2
	46~50세	29.2	43.9	40.6
	51~55세	8.3	21.0	20.0
	56세 이상	2.0	7.3	7.9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5.3	0.5	1.2
	36~40세	40.5	15.5	22.1
	41~45세	36.2	40.5	43.1
	46~50세	10.4	19.8	25.9
	51세 이상	2.6	7.7	7.7
아버지 교육수준	국 졸	6.5	12.2	26.0
	중 졸	17.0	18.8	27.2
	고 졸	50.3	38.7	40.3
	대졸이상	26.1	30.3	6.6

%

변 수		중학생	인문계고등학생	실업계고등학생
어머니 교육수준	국 출	10.9	21.1	33.3
	중 졸	29.8	28.1	35.8
	고 졸	47.3	38.0	28.8
	대졸이상	12.4	12.8	2.1
가족수	3인 이하	7.3	4.5	8.4
	4인	44.1	35.5	24.6
	5인	30.8	32.8	36.9
	6인 이상	17.9	27.2	30.1
형제수	1명	11.9	7.9	4.2
	2명	45.0	33.4	21.1
	3명	27.8	34.4	34.3
	4명 이상	15.1	24.3	37.4
가계소득	70만원 미만	10.8	11.8	22.0
	70~100만원 미만	18.5	17.2	24.2
	100~150만원 미만	29.1	30.3	24.2
	150~200만원 미만	21.9	21.1	17.8
	200만원 이상	19.6	19.7	11.8

2. 자아상에 대한 태도

자아상에 대한 평균값은 26.10점(범위 8-40; 표준편차 5.01)으로, 청소년들은 보통 정도(24점) 이상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한 문항별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로부터의 신뢰 및 인정을 받는다는 경우가 87.1%, 자신에 대한 역량감을 갖는 경우가 82.7%, 가정에서의 자신의 필요성이 82.9%, 또래 집단으로부터 인기있다는

경우는 78.9%로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이성으로부터의 인기가 없는 경우는 48.1%, 자신의 체격이나 얼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32.7%이며, 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의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각한 비율은 29.0%로 나타났다.

3.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사회불평등에 대한 평균값은 27.92점(범위 12-40; 표준편차 3.97)으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사회 현상에 대해 불평등하게 인식하는 편이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내용은 힘없고 돈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82.8%),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별이 매우 심하며(81.5%),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부도덕한 사람이 많고(67.8%),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62.7%)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인식한 청소년은 53.6%이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한 청소년도 48.3%에 이른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청소년은 51.7%,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부하는 사람보다 결국 더 출세를 한다고 보는 청소년은 33.1%로 나타났다. 발달적 특성상, 청소년은 자유나 정의 사랑에 대해 이상적인 자신의 세계를 갖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며 이상적 사회상을 그리는 시기이므로 우리 사회의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했을 가능성도 보인다. 청소년이 갖고 있는 이상주의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실과 타협하게 되므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 필요없다거나 사회불평등 현상을 지각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성취동기를 고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불평등에 대한 지각을 축소시키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각은 매우 보수적이고, 위험하다. 청소년들이 지각한 우리 사회상은 극히 부분적이며, 주관적 반영된 지각된 실체이긴 하나, 지각된 현상도 실제 이상으로 인간의 정신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우리 사회에서 드러난 병리적 현상이 너무 잦고,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가 주는 의미는

게우 심각하다. 비교적 건실한 자아상을 소지한 청소년이라도 사회 현실의 부정적 현상을 접하면서 그들의 생활 세계에는 무절제, 무규범, 이기주의, 편법성과 같은 병리적 심성이 점차하게 되고,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나 빈부에 대한 격차는 심하게 느끼면서 사회적 상향 이동의 가능성을 시사받지 못함으로써, 삶에 대한 목표를 상실하고 자포자기적 태도로 일탈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가족이탈 성향

가족이탈 성향에 대한 평균값은 8.50점(범위 4-20; 표준편차 3.25)으로,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 점수는 낮다. 그러나 가족이탈에 관한 문항 자체가 청소년에게는 일탈 행위와 관련되므로, 8.50점이라고 해도 간과할 수 없으며, 평균치의 의미보다 문항별 빈도분포의 결과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 생각만 하면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경험을 가끔, 자주, 항상 한다는 중고생은 전체 응답자의 40.4%이고, 집을 뛰쳐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중고등학생은 40.1%이며,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한 적이 있다는 중고생은 38.0%에 이르러 청소년의 안식처 구실로서의 가족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극히 충동적인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우려할 만한 시점에 있다.

5 장 연구결과 및 해석

이번 장에서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보는 가족내 문제를 살펴보고, 가족문제에 대한 전반적 경향과 관련 변수에 따른 가족문제를 분석했다. 또한 가족 문제의 영향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가출성향과의 관계를 파악했다.

1.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지각한 청소년기 가족 문제의 실태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시키는 가족 문제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가 41명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이 지각한 가장 심각한 청소년기 가족문제는 부부간, 고부간 부모-자녀간의 불화이며(26명),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부재 및 단절(24명)이 두번째로 심각한 가족 문제였다. 학업 성적을 중시하고 과잉 교육열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각한 전문가도 13명이며, 자녀에 대한 과잉 기대를 지각한 전문가 역시 11명에 이른다. 부모의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 태도, 강요와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한 자녀의 통제, 물질 중심의 양육태도를 문제점으로 지각한 경우도 10명에 이른다. 이를 과잉기대, 과잉 교육열을 포함하여 광의의 그릇된 양육태도로 볼 때, 41명의 전문가 중 34명이 심각한 가족문제로 지각하고 있다. 상당수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잣대로 청소년 자녀를 재고, 자녀의 개성을 무시한 채, 학업에 대한 기대를 일률적으로 함으로써, 부모-자녀간의 세대간 단절 및 대화의 부재를 야기시키며, 청소년의 부적응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간 불화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상실케 하고, 청소년의 가족 이탈을 부추기는 등 가족의 와해를 초래하므로 주목을 요한다.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된 부모의 행동으로 9명의 전문가가 지각한 것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정상적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각한 것은 청소년 자신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고집한다거나 욕구의 표출 방법이 그릇된다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배타적 경쟁 논리와 결과만

을 중시하는 왜곡된 가치관, 공동체 의식의 결여, 경제적인 곤궁함, 가정교육의 방향 상실 또한 청소년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어 청소년 문제를 예방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더불어 사회와 연계하여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이 지적하는 청소년기 가족문제는 전문가 집단이 가장 많이 기술한 응답 범주를 반영하여 문항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사회 책임에 대한 응답 범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의 행동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주변의 청소년기 가족문제를 복수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이며(67.1%), 부모들이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56.4%),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51.1%) 역시 주된 가족 문제로 지각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부재(48.2%), 입시위주의 양육(44.9%), 자기 자식만 아는 이기주의적 태도(43.8%)도 간과할 수 없는 가족문제라고 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43.8%에서 67.1%에 달하는 청소년이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가족문제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공통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반수에 달하지는 않지만, 응답자의 1/4 이상이 지적한 가족문제는 부모가 출선수범적 행동을 보이지 않거나 부모가 생업에만 매달리거나 부모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물질적인 것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부모의 태도 역시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적은 결국 부모가 자식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고 건전한 태도로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청소년이 지적한 앞서의 가족문제 실태에 대한 자료는 청소년의 가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적한 가족문제는 전문가 집단이 지적한 가족문제와 유사하며, 과잉기대, 대화부재 및 단절, 입시위주의 양육, 청소년의 심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주된 가족문제로 지적되었다. 청소년들이 가족내 문제의 실상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전문가 집단과의 시각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문제 해소 방안을 강구할 때 청소년 나름대로의 주체적 역할을 감당해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청소년의 요구가 반영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문제에 대한 시각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점은 더 문제이다.

다음 절에서는 가족문제 실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련 변수에 따라 파악하고자 한다.

2. 청소년이 경험하는 청소년기 가족문제에 대한 일반적 경향

청소년기 가족문제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이전에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문제에 대한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 가족체계의 특성에 대한 문항의 빈도 분포에 의하면, 자신의 집에 태어난 것에 만족한다는 경우는 56.6%인 반면, 자신의 가족에 대해 거의,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20.6%, 식구들은 각자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존중한다는 문항에 대해 거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18.0%, 식구들끼리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문항에 대해 거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경우 역시 13.0%에 이르러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자긍심이 낮고 가족원간의 유대가 소원한 일부 가족의 경우,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지원 체계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이 우려되는 상태이다.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 지각 양상은 가족의 경제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을 포함하여 가족간의 소원함, 무관여, 가족, 친족간의 불화 등이 포함된다. 매우,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항은 집에 없는 것이 많고 문화 시설도 없어 불만이라는 것(16.9%)과 부모가 생활비나 학비 때문에 돈 걱정을 하신다는 것(25.5%)이다. 조사대상자의 1/4이상이 생활이나 학비때문에 부모가 돈 걱정을 한다고 지각한다는 것은 부모가 학교 공부에 대한 불신이나 입시 위주의 양육에 매달리면서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에 지나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가족 스트레스는 다시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공부 압력감을 주게 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간의 불화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위축시키는데, 특히 부모님끼리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며 싸운다는 경우는 17.9%로 나타났다. 가족 각각 자기 뜻대로만 행동한다는 반응이 14.7%, 부모간의 양육 방침이 달라서 혼란스럽다는 경우는 10.5%로 나타나 가족간의 유대감이 약하고, 가족내 규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부모 노후나 부양에 대해 매우, 대체로 부담스럽다는 청소년도 10.6-17.0%에 이르고 있다. 형제간에 서로 때리고 싸우거나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도 9.4-10.9%이며, 조부모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너무 의존한다고 지각한 청소년은 13.1%, 조부모가 자신의 집안 일에 간섭을 하신다고 응답한 청소년 역시 12.7%에 이르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 10-20% 이내의 청소년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관련 변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청소년기 가족문제로 많이 거론되는 부분은 의사소통 영역이다. 부모-자녀간의 대화 부재 및 대화기술의 부족이 청소년의 적응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양상 및 의사소통 장애 원인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청소년이 부모와의 대화 장애 원인으로 복수응답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자신과 부모님 어린 시절이나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는 응답(56.6%)과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응답(56.0%)이었다. 이 두 반응은 다소 상반된 부분이 있다. 즉, 대화시에 보일 부모의 반응이 쉽게 예상되기 때문에 대화를 주저하게 되기도 하고, 부모의 반응이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거나 일관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주저하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효율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통제하면서 다소의 융통성과 일관성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한편, 식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반응도 38.1%에 이르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족으로부터 각 가족 구성원의 집합소로의 변질되어 가는 현대 가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대화 끝에 안 좋았던 씁쓸한 기억 때문에 부모와의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경우가 24.4%, 무슨 이야기를 나누던 간에 대화 결과가 자신의 탓으로 결론

나기 때문이라는 경우는 21.1%에 이르러,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했다기 보다는 대화 기술상의 부족이나 가치관의 대립으로 대화를 회피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에 관한 부모의 어떤 태도가 청소년을 화나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청소년 자신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지시만 내리려고 할 때(52.9%), 듣기도 전부터 화부터 낼 때(49.5%), 부모의 생각만이 옳고, 내 의견은 잘못 되었다고 할 때(47.9%),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할 때(39.3%), 나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둘 때(39.1%), 나의 말꼬리를 잡을 때(28.4%)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할 때 몹시 화가 난다고 한다. 이상,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대화 태도는 대화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태도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은 더욱 부모로부터의 소외감과 가출 충동을 느끼며, 적응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기 가족문제 가운데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응답 결과의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해 모른다고 지각하는 경우는 65.5%이며, 사고방식에 대해 모르는 경우는 59.0%로 나타나, 그들의 부모가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무지하다고 지각하고 있어 부모로부터의 배려 및 이해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부모가 기대한다는 경우가 57.5%, 부모의 못이룬 꿈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한다는 경우가 54.4%로 나타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압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상은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자녀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 상태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기대만 무성한 부모의 태도에서 청소년 자녀는 실제로보다도 부모의 기대를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많고, 부모에 대한 반발심만 커지고, 가출 충동을 느끼며,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을 때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경우가 59.7%,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고 말하는 경우가 36.9%, 살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는 33.5%이다. 앞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이지만 부

모와 자녀와의 대화 장애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꾸짖을 때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러한 행동 역시 부모의 문제 행동으로 많이 지적된 바이다. 결국 자녀 훈육시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서 꾸짖는 것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부모가 자신을 너무 어린 아이 취급을 하신다는 경우가 37.0%,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일일이 알려고 하신다는 경우가 31.4%, 부모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고 섭섭해 하신다는 경우가 31.2%로 나타나 부모가 과보호하고 간섭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경계가 미분화될 여지가 많다.

자식에게는 말로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 자신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32.0%, 자식에게는 솔직하라고 하면서 부모님 자신은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23.5%, 자녀가 지켜야 할 사항은 많지만, 부모가 지켜야 할 사항은 거의 없다는 경우가 41.2%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모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거나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솔선수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며, 자녀에게 혼란만을 줄 뿐이다.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갖는 경우가 39.2%, 모든 일에 지나치게 완벽한 경우가 35.4%, 체면을 매우 중시한다는 경우가 34.6%, 술취한 모습을 자주 본다는 경우가 33.6%, 걸핏하면 신경질을 낸다는 경우가 30.3%에 이르러, 감정적이며, 형식과 편견에 사로잡힌 부모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 행동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심리 상태나 사고 방식을 모르고,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보이며, 체면을 매우 중시하고 지나치게 완벽하고, 집안 일 제쳐 두고 자기 일 밖에 모르며, 너무 엄해 농담이 통하지 않으며, 실속없이 허세부리고, 화투나 트럼프를 하고 술 취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경우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적되었으며 그 비율이 10%—30%이상 많이 차이가 났다. 청소년기 부모의 역할 가운데 아버지 역할의 비중이 커지고, 자녀나 부인으로부터 아버지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볼 때, 아버지의 문제 행동이 어머니보다 많다는 점에서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3.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응답자의 성별, 교급별, 지역별 가족수, 가계소득, 어머니의 연령, 취업, 아버지의 직업,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연구문제 2의 분석에 앞서 청소년기 가족문제의 하위 영역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장애 요인과 부모의 문제 행동간의 상관분석에 의하면, 각 하위 영역간에 서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가족체계의 특성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장애 요인과의 상관은 각각 $r=.42$, $r=.36$ 으로 높고, 가족체계의 특성과 부모의 문제 행동과의 상관 역시 $r=.57$ 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문제 행동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장애 요인과의 상관도 각각 $r=.48$, $r=.45$ 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가족체계의 부정적인 특성이 많은 가족의 경우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부모 역시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의 적응을 돕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문제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체계의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분석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가족체계의 특성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교급별, 지역별,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 유무, 아버지의 직업,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족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급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가족체계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했고, 중학생들의 가족체계에 대한 지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의 하위 영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은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도 적고, 가족이 더 혼란스러우며, 경

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족간의 사이가 나쁘고 폭언, 폭력을 행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경제적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업계 고등학생이 가족체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2〉 교급별 가족체계의 특성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체 계 특 성	중 학 교	50.06(13.87)	A	52.85***
	인 문 고	52.44(13.50)	B	
	실 업 고	58.89(15.42)	C	

*** $P < .001$

지역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청소년들이 가족 체계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했고, 직할시 청소년들의 가족 체계에 대한 지각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의 하위 영역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서울시 청소년들은 하위 영역 전반에 걸쳐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반면, 직할시나 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가족 체계에 대한 지각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군 지역과 직할시 청소년은 가족간의 불화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걸쳐 유사한 경향을 보여,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도 적고, 가족이 더 혼란스러우며,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서울시와 군 지역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체계의 특성을 살펴볼 때, 도시화의 특성상 서울의 청소년이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도 적고 가족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군 지역의 청소년이 가족에 대한 불만이 많고, 가족간의 유대감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지역의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의 학력 차이나 생활 문화의 차이로 인해 가족간의 공영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며 청소년의 가출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는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실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지역별 가족체계의 특성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체 계 특 성	서 울 시	51.19(14.70)	A	4.94**
	직 할 시	54.54(15.01)	B	
	시 지 역	52.53(13.33)	AB	
	군 지 역	53.39(14.69)	AB	

** P<.01

가족 수에 따른 가족체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족 수가 6인 이상이거나 3인 이하인 경우 가족 체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했다. 가족체계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족 수가 적은 경우에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수 가족과 다수 가족의 청소년들은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적고, 가정경제상의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수가 적은 경우에는 편모나 편부 가족, 형제없이 외동아이인 가족이 포함되어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경제상의 불만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 가족의 경우는 자녀 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심리적, 경제적 배려가 적기 때문에 가족간 유대감도 적게 느끼고 물리적 경제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

가족수에 따른 가족체계의 특성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체 계 특 성	집단1(3명이하)	55.13(15.20)	A	3.97**
	집단2(4명)	51.76(13.51)	B	
	집단3(5명)	52.69(14.32)	AB	
	집단4(6명이상)	54.17(15.26)	A	

** P<.01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가족체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연령이 많은 경우 청소년은 자신의 가족체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했다. 가족체계의 하위 영역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연령이 많은 경우, 가족 부양에 대

한 부담이 가장 크고,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도 적고, 가정경제상의 불만도 크며, 가족내 규칙이 모호하고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고 지각했다. 이는 결국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차이로 인해 가족간의 심리적 거리가 멀고, 어머니의 연령이 다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어머니의 연령별 가족체계의 특성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집단1(-40세이하)	51.87(13.67)	A	9.02***
체 계	집단2(41-45세이하)	52.14(14.09)	A	
특 성	집단3(46세이상-)	54.90(15.17)	B	

*** $P < .001$

어머니의 취업과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취업모의 자녀가 가족체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했다. 가족체계의 하위 영역 모두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취업모의 자녀는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꼈고,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도 많고,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도 적고, 가족간의 불화가 많고, 가족내 규칙이나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자칫 어머니의 취업이 가족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다. 그러나 취업모인 경우,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특성을 어머니의 직종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앞서의 해석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족체계의 특성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t값
가 족 체 계	취 업	54.68(14.75)	-5.64***
특 성	비 취 업	51.18(13.75)	

*** $P < .001$

어머니의 취업 유무로만 볼 때와는 달리 어머니의 직종별로 나눌 때, 중고등학생은 가족체계를 다르게 지각하였다. 어머니가 전업 주부인 경우 중고등학생이 지각

한 점수와 비교해 보면, 전업 주부일 때 51.18점인데 반해,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49.37점, 사무직인 경우 49.96점으로 오히려 전업 주부인 경우보다도 가족체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집단은 어머니의 직업이 생산노무직이거나 농업 종사자인 경우로, 이들의 중고등학생 자녀는 가족체계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가족체계의 하위 영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생산노무직이나 농업 종사자인 경우, 중고등학생은 가족원간에 사이가 나쁘고, 폭력적이며,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고, 가족내 규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지각했다. 어머니의 직업 지위가 낮고 신체적 피로도가 심하며, 대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불만이 자녀에게도 투사되어 가족 분위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어머니의 취업 자체 보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가가 더 의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의 가족체계에 대한 부정적 지각은 사회계층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받는다.

〈표 7〉 어머니의 직업별 가족체계의 특성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체 계 특 성	집단1(전문관리직)	49.37(12.71)	A	6.46***
	집단2(판매서비스직)	54.21(14.14)	AB	
	집단3(사무직)	49.96(13.50)	A	
	집단4(생산노무직)	57.62(15.90)	B	
	집단5(농업)	55.56(14.17)	AB	

*** P<.001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가족체계에 대한 지각 성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이거나 생산 노무직인 경우, 청소년의 가족 체계에 대한 지각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인 경우는 가족체계에 대한 지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체계의 하위 영역에서도 모두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사무직인 경우,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가족내 질서가 잡혀 있어 적응성이 높고,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도 적게 느끼고 있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이나 생산

노무직인 경우에는 청소년은 가족간의 사이가 나쁘고, 폭력적이며,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많고, 가정경제 사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아버지 직업별 가족체계의 특성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체 계 특 성	집단1(전문관리직)	50.01(13.47)	AB	16.72***
	집단2(판매서비스직)	52.70(13.75)	A	
	집단3(사무직)	49.76(14.00)	B	
	집단4(생산노무직)	55.62(14.40)	A	
	집단5(농업)	55.64(14.61)	A	

*** P<.001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특성과 아버지의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역시 앞서의 결과와 유사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체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 반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가족체계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의 하위 영역별 분석 결과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9〉 아버지의 교육수준별 가족체계의 특성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체 계 특 성	집단1(국졸)	58.38(14.35)	A	26.15**
	집단2(중졸)	54.95(14.03)	B	
	집단3(고졸)	51.95(14.14)	C	
	집단4(대졸이상)	49.59(13.97)	D	

** P<.01

가계소득별 분석 결과 역시,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이 가족체계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의 하위 영역별 분석 결과도 일관되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은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도 적고, 가족간의 불화가 많고,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크고,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도 많고, 가족이 혼란스럽다고 지각했

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업, 가계소득은 사회계층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서로 상관이 높아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체계의 특성과 각각의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수의 독립적인 주 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두 변수 세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이 낮고, 하위직에 종사하거나 가계소득이 저소득층인 경우, 가족의 물질적 환경도 열악하고, 사회적 지위도 낮고, 부모의 대인관계 기술등의 부족으로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크고, 현실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심리적·경제적 지원체계의 확립이 요청된다.

〈표 10〉 가계소득별 가족체계의 특성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체 계 특 성	집단1(70만원 미만)	59.14(15.53)	A	26.06***
	집단2(70-100만원 미만)	55.10(13.84)	B	
	집단3(100-150만원 미만)	52.71(13.90)	C	
	집단4(150-200만원 미만)	50.46(12.70)	CD	
	집단5(200만원 이상)	48.99(13.80)	D	

*** P<.001

2)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성별, 가족수, 어머니의 연령, 취업, 아버지의 직업별, 교육수준별,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교급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급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경험하여 인문계 고등학생과 중학생과의 차이가 났다. 앞서의 가족체계의 특성에 관한 실업계 고등학생의 지각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이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부모-자녀간에 비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교급별 역기능적 의사소통 -장애 원인-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 학 교	2.44(1.54)	A	17.92***
	인 문 계	2.57(1.62)	A	
	실 업 계	3.00(1.77)	B	

*** $P < .001$

부모와의 대화 장애 요인 중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은 가족끼리 서로 만날 절대 시간이 부족하고, 부모의 대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며, 대화하기가 귀찮다거나 틀에 박힌 결론이 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많이 들고 있다. 또한, 부모의 태도 중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지지만 내리려 한다거나 부모가 책임지지 않고, 남의 탓을 하려 할 때, 욕설을 퍼부을 때, 말꼬투리를 잡을 때,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낼 때 등으로 부모의 감정적이고 방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교급별 역기능적 의사소통 -태 도-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 학 교	3.28(2.25)	A	14.60***
	인 문 계	3.16(2.10)	A	
	실 업 계	3.83(2.44)	B	

*** $P < .001$

지역에 따라 중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직할시의 중고등학생들이 부모-자녀간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와 군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지역별 역기능적 의사소통 -장애 원인-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F/유의도
역 기 능 적 의 사 소 통	서 울 시	2.66(1.74)	4.01**
	직 할 시	2.78(1.70)	
	시 지 역	2.49(1.54)	
	군 지 역	2.52(1.58)	

** P<.01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모 관련 변수나 가족 관련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각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인듯 싶다. 그것보다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은 교육과 무관하게, 그들이 속한 계층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대화 기술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보다 실상에 근접한 설명일 것이다.

3) 부모의 문제 행동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문제 행동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하였으며, 부모의 문제 행동의 하위 영역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부모의 문제 행동을 여러 하위 영역으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의 상황에서 각각의 문제 행동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여러 문제 행동이 복합적이고 반복되어 나타날 때, 자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부모가 취하는 여러 문제 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문제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대안 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부정적 양육 행동간의 상관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육 방침이 혼란스럽고, 일관되지 않으며, 체면과 형식에 매달리고, 편견을 갖고 있으며, 술과 도박 등에 탐닉하고, 거부적이면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의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는 자녀에 대해 특히, 무관심하고 거부적이며, 권위를 내세우고, 형식을 중

〈표 14〉

부모의 문제 행동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

	무관심	모순형	간섭형	형식주의	탐닉적행동	익애형	과잉기대형	거부형	편견	부정적가치전수	강요형
무관심	1.000										
모순형	.5539**	1.0000									
간섭형	.1881**	.2896**	1.0000								
형식주의	.3671**	.4103**	.3132**	1.0000							
탐닉적행동	.4389**	.4914**	.1459**	.3098**	1.0000						
익애형	.1678**	.1607**	.1525**	.2432**	.0971**	1.0000					
과잉기대	.1895**	.2298**	.1943**	.2773**	.1810**	.1988**	1.0000				
거부형	.4178**	.5247**	.2974**	.3522**	.3663**	.0883**	.1568**	1.0000			
편견	.3521**	.4181**	.2565**	.3247**	.2561**	.1071**	.2497**	.3669**	1.0000		
부정적가치전수	.3492**	.4028**	.2173**	.3517**	.3119**	.1910**	.2594**	.3274**	.3238**	1.0000	
강요형	.3773**	.4673**	.4074**	.4182**	.2748**	.1680**	.2694**	.4072**	.3561**	.3744**	1.0000

**p < 0.01

시하고, 부정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간에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므로, 부모의 문제 행동에 노출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은 자신감이 결여되기 쉬우며, 불안해 하는 등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부모-자녀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이므로 부모의 문제 행동 역시, 부모 개인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가 유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이 선행되었든간에, 부모의 부정적 행동은 주변의 상황에 민감하고, 이상향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반감과 혼란만을 가져오게 된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문제 행동이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전체적인 부모의 문제 행동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하위 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은 자신의 부모가 형식과 체면을 중시하고, 자녀에 대한 과잉 기대나 편애를 하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등 이기적 태도를 더 보인다고 지각했다. 이러한 요인은 아직까지도 딸보다는 아들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편애하며, 특히 집안의 대를 이어갈 아들에 대해 부모 입장에서 더 체면치레를 하는 모습이 남학생의 눈에 비추어졌을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술이나 도박 등에 탐닉하는 행동을 보이고, 자식에게 강요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의 건전한 생활 태도를 함양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주목을 요한다.

교급별에 따라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문제 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부모의 문제 행동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들은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문제 행동의 하위 영역 중 과잉기대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걸쳐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부모가 못이룬 꿈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지각하는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의 압력을 빠르게,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생은 부모가 자녀 심리나 발달 상태에 대해 모르고 자녀의 생활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지각했으며, 일관성 없게 자녀를 양육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형식과 체면을 중시하며, 부모의 탐닉적 행동으로 인해

자녀에게 모범적 행동을 하지 못하며, 자녀에 대해 거부적, 익애적 태도를 보이며, 편애를 하고, 부정적 가치를 자녀에게 강조한다고 보고하여,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5〉 교급별 부모의 문제 행동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부 모 문 제 행 동	중 학 교	12.63(8.27)	A	20.78***
	인 문 계	13.70(7.58)	A	
	실 업 계	15.85(8.25)	B	

*** $P < .001$

지역별 분석에서는 서울시 거주 중고등학생의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각이 가장 긍정적이고, 군 거주 청소년의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각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문제 행동의 하위 영역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군 지역의 중고등학생은 부모가 술이나 도박 등에 탐닉해 있어 자녀에게 술선수범적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도 부정적이어서 거부적, 익애적, 과잉 기대, 강요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했고, 특정 자녀를 편애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렇듯 군 지역의 중고등학생의 가정환경에서, 부모는 자기 세대의 한을 자녀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는 태도가 덧붙여 과잉기대도 하고 지나치게 허용적이기도 하며, 자녀의 일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 세대를 이해하기에는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가 건강하지 않고, 혼란과 반발심을 키워 가족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많다.

〈표 16〉 지역별 부모의 문제행동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부 모 문 제 행 동	서 울 시	12.62(8.22)	A	6.24***
	직 할 시	13.96(7.84)	AB	
	시 지 역	13.61(8.06)	AB	
	군 지 역	15.05(7.76)	B	

*** $P < .001$

가족 수에 따른 부모의 문제 행동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4인 가족의 경우에 부모의 문제 행동을 가장 적게 보고했으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중고등학생은 부모의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문제 행동의 하위 영역에서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부록 참고). 3인 이하와 6인 이상 가족의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문제 행동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양육상 일관성이 결여된 행동을 하는 것, 부정적 가치를 강조하고, 술이나 도박에의 탐닉해 있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다수 가족의 경우 가족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자녀양육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가족 수가 적은 경우는 자녀 수가 적어 오히려 부모의 간섭이나 강요적인 태도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 가족에 외동 아이인 경우도 포함되지만, 편부모 가족의 경우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기에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고, 일관된 태도로 양육에 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17〉 가족 수에 따른 부모의 문제 행동

번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부 모 문 제 행 동	집단1(3명이하)	13.79(9.33)	AB	3.36*
	집단2(4명)	13.03(7.57)	A	
	집단3(5명)	14.07(8.18)	AB	
	집단4(6명이상)	14.36(8.13)	B	

* $P < .05$

중고등학생의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각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났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어머니를 둔 중고등학생은 부모의 문제 행동을 보다 많이 지각하였다.

부모의 문제 행동의 하위 영역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중고등학생은 어머니가 젊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를 간섭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지각하였고, 어머니의 연령이 많은 경우, 중고등학생은 부모가 자신에게 부정적 가치를 강조하고 편견을 많이 갖고 있으며, 강요 또는 무관심한 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있다고 지각했다.

〈표 18〉

어머니의 연령별 부모의 문제 행동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부 모	집단1(-40세이하)	13.53(7.94)	A	6.23**
문 제	집단2(41-45세)	13.23(7.96)	A	
행 동	집단3(46세이상)	14.70(8.17)	B	

** $P < .0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취업모의 자녀는 부모가 문제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했다. 부모의 문제 행동의 하위 영역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취업모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더 거부적이며, 더 무관심하고, 탐닉적 행동에 더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행동에 대해 덜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절대량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구체적인 행동 교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취업모의 경우 신체적으로 피곤하므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된다. 어머니의 직종에 따른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하위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19〉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의 문제 행동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t값
부 모	취 업	14.22(8.45)	2.40*
문 제 행 동	비 취 업	13.36(7.66)	

* $P < .05$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문제 행동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났다. 아버지의 직업이 생산 노무직 또는 농업 종사자인 경우, 청소년의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각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또는 전문 관리직인 경우는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하위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일관성 없게 자녀를 양육한다고 지각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아버지 직업은 생산

노무직이나 농업 종사자였다. 그러나 부모가 술이나 도박등 탐닉적 행동에 빠져 있다고 보고한 학생의 아버지 직업은 농업이나 판매, 서비스직으로 나타나, 전체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이는 아버지가 직업상 사교적으로 술 등을 마실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 농촌의 성격상 다른 여가나 문화 생활을 즐길 만한 기회가 부족하고 도시에 대한 박탈감 등을 해소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표 20〉 아버지 직업별 부모의 문제행동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부 모 문 제 행 동	집단1(전문관리직)	12.96(7.76)	AB	6.06***
	집단2(판매서비스직)	14.37(8.11)	A	
	집단3(사무직)	12.56(8.05)	B	
	집단4(생산노무직)	14.67(7.77)	A	
	집단5(농업)	14.66(8.47)	A	

*** P<.001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문제 행동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의 문제 행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의 문제 행동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나친 형식주의에 매달리는 부모의 문제 행동 영역을 제외한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생활에 간섭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영역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부모의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과잉기대를 하고,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고 무관심하며, 일관성 없이 양육하고, 편견을 갖고 있어 이들 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됨에 대한 역할 및 소양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표 21〉

아버지의 교육수준별 부모의 문제행동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부 모 문 제 행 동	집단1(국졸)	15.33(8.35)	A	12.30***
	집단2(중졸)	14.84(8.07)	A	
	집단3(고졸)	13.89(7.86)	A	
	집단4(대졸이상)	12.12(7.97)	B	

*** P<.001

가계소득에 따른 부모의 문제 행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역시,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이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술이나 도박등에 빠져 있어 술선수범적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자녀에게 주는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표 22〉

가계소득별 부모의 문제 행동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부 모 문 제 행 동	집단1(70만원 미만)	14.91(8.80)	A	4.73***
	집단2(70-100만원 미만)	14.40(7.88)	AB	
	집단3(100-150만원 미만)	14.12(7.89)	AB	
	집단4(150-200만원 미만)	12.87(7.55)	B	
	집단5(200만원 이상)	12.78(7.90)	B	

*** P<.001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업, 가계소득은 사회계층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서로 상관이 높아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문제 행동과 각각의 독립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주 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두 변수 세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문제 행동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라는 변수가 사회계층적 요소외에 어머니의 교육수준과의 상관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결국

부모의 구체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의 대인관계 기술 및 양육 가치 등 개인적 자질 함양과 관련된 것이 그들이 받은 교육의 영향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속 분석 작업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해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의 삼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이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주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옴으로써 양육자의 교육수준이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4.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와 사회심리학적 변수와의 관계

본 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가족내 문제의 실태 파악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으나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나 부모의 문제 행동 등 가족 문제는 청소년의 자아상,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이탈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 행동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설정된 연구 문제 3 즉,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와 사회심리학적 변수와의 관계의 유의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자아상,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가족 이탈 성향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변수를 설정한 이유가 가족 문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가족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절에서는 가족문제의 제 양상과의 관계만을 기술하고자 한다(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는 부록 참고).

1) 가족문제와 청소년의 자아상

가족체계의 특성과 자아상은 밀접한 상관을 보여, 가족체계의 부정적 측면이 많을수록 자아상이 낮게 나타났다($r = -.40^{***}$). 특히 가정경제 상태가 열악하여 불만이 많고($r = -.32^{***}$)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적을수록($r = -.42^{***}$) 청소년의 자아상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상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r = -.18^{**}$), 자아상과 부모의 문제 행동과도 부적 상관을 보여,

부모의 문제 행동 빈도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대화를 할수록, 중고등학생의 자아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 = -.28^{***}$). 특히, 청소년의 자아상과 부정 상관을 보이는 부모의 문제 행동의 하위 영역은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와 거부적 태도로 나타나, 긍정적 자아상 확립을 위해 지양해야 할 양육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약한 정도이긴 해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상은 부정 상관을 보여,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자기가치감이 낮게 되며 정신건강상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사티어의 주장을 고려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과 부모의 문제 행동은 청소년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주요 가족문제라는 것을 시사받는다.

2) 가족문제와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가족체계의 특성과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 분석 결과 낮은 정적상관($r = .23^{**}$)을 보였다. 가족체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사회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정 경제 사정이 좋지 않거나($r = .20^{**}$) 가족 내 규칙 없이 혼란스러운 경우에 사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0^{**}$).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매우 미약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문제 행동과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 분석에 의하면, 미약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r = .18^{**}$), 하위 영역에 대해서도 미약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의 골이 깊어 기존의 사회 제도에 대해 회의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시기이다. 앞서의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사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 문제와 상관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부분적으로 일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3) 가족문제와 가족이탈 성향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과 가족문제와의 상관 분석에 의하면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과는 높은 정적 상관($r=.51^{***}$)을 보였다. 가족체계의 하위영역과 가족이탈 성향과의 상관을 보면,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고($r=.32^{***}$), 가족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폭력적일 때($r=.39^{***}$),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가 약하고($r=.45^{***}$) 가족내 규칙이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울 때($r=.49^{***}$)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높았다.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역기능적 의사소통태도($r=.37^{***}$) 및 장애 요인($r=.45^{***}$)과 정적 상관을 보여 부모의 대화 기술 부족 역시 청소년의 가족이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과 부모의 문제 행동간의 상관 역시 $r=.45^{***}$ 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r=.28^{***}$), 권위를 내세우며, 강요적이며($r=.30^{***}$),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고($r=.37^{**}$),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r=.34^{***}$), 일관성 없고 모순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r=.38^{***}$),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자주 하고, 부모의 문제 행동 빈도가 많아질 때,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이 증가한다는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문제의 중요성 및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5. 가족이탈 성향에 미치는 독립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 역기능적 의사소통, 부모의 문제 행동 빈도,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자아상,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단계별 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체계의 부정적인 특성이며, 두번째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세번째는 사회불평등에 대한 지각, 네번째는 자아상, 다섯번째는 부모의 문제 행동 빈도, 여섯번째는 가계소득이다. 이 여섯 변수는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의 36.1%를 설명하고 있다.

즉, 가족간 정서적 유대가 적고 가족내 규칙이 혼란스럽고 가족간 불화도가 높으며, 경제 상황이 어렵고 물리적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고, 청소년 자신의 자아상이 부정적이며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고, 부모의 문제 행동을 많이 하며, 사회불평등에 대해 많이 지각하고,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청소년기 가족문제를 예방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청소년기에 대한 당사자 및 부모의 이해가 요구된다.

〈표 23〉 가족이탈 성향에 대한 관련 변수의 독립적 효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회귀계수	R ²
가족이탈성향	가족체계의 특성	.30	36.1
	역기능적 의사소통	.23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10	
	자아상	-.10	
	부모의 문제 행동	.10	
	가계소득	0.8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가족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가족이라는 상황에 놓여진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족이라는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첫째, 가정에서 경험하고 지각하는 가족문제를 가족체계, 부모관계, 의사소통 문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청소년 자신의 가족에 대한 설문조사로 연구하였다. 둘째,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교수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가족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개방형 질문 2문항으로 설문조사한 내용과 청소년들이 주변의 일반 가족문제에 대해 응답한 결과도 함께 분석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몇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가 설문대상 청소년들의 부모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기입한 내용에 한정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간과해버리기 쉬운 부모들의 행위와 태도에 대해 통찰력을 주는 청소년의 입장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지각한 주요 가족문제들은 청소년측에서 자신이 스스로 극복해야할 문제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다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청소년들 스스로가 찾아내어 그들이 주체가 되는 정책을 강구하는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높은 응답율로 지각한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시키는 가족문제는 부부간, 고부간, 부모자녀간 불화였다. 부부간의 갈등이 흔히 부모자녀간 갈등, 형제간 갈등, 가족갈등으로 이어지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가정내에서 다른 가족성원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므로 정서적 갈등으로 가득찬 분위기에서 불유쾌한 경험을 갖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이 가정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과 불화가 심한 가정의 아이들이 비행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많이 지적된 심각한 가족문제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부재 및 단절이었다. 그 다음은 학업성적을 중시하는 과잉교육열 문제와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를 각각 지적하였다. 그러나, 과잉기대와 과잉교육열을 합할 경우 교육문제가 청소년의 부적응을 야기하는 주요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된다. 더우기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배타적 경쟁논리와 결과만을 중시하는 왜곡된 가치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결국 과잉교육열의 문제와 맥을 같이하는 사회문제므로 우리사회의 교육문제가 청소년 가족문제의 커다란 불씨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 강요에 의한 자녀의 통제,

물질중심의 양육태도도 적지 않게 지적되었고,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대해 무지한 부모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지적한 가족문제에 의하면, 자녀의 자울성을 무시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대해 무지한 채, 지나친 교육열에 의해 자녀에 대해 과잉기대함으로써 부모자녀간의 세대간 단절 및 대화부재 현상이 청소년의 사회, 가족, 학교에 대한 부적응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른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주변의 일반가족의 문제, 청소년 자신의 가족체계의 특성, 자신의 부모의 문제 행동, 자신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일반 가족에 대해 청소년들이 복수 응답한 결과에서 청소년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가족문제로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된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였다. 여기다 청소년들이 응답한 입시위주의 양육태도를 합하면 단연 교육문제가 우리사회의 일반 가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범이다. 부모들이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부재도 각각 크게 청소년들이 지적하였다. 결국,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무지한 채, 자녀에 대한 이기적인 교육열에만 빠져 있는 주변 부모들의 비사회적인 모습이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적나라하게 비춰진 것이다.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적한 우리사회의 주변의 부모들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단이 지적한 가족문제와 유사하여, 입시위주의 양육에 바탕을 둔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 부모-자녀간의 대화 부재 및 단절, 그리고 청소년의 심리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를 보여 주었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생존 및 상향 이동에 중시되던 토지가 산업 사회에서 이제 교육으로 대체된 모습으로 가족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청소년들이 응답한 자신의 가족체계의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집에 태어난 것에 만족한다는 경우는 56.6%로서, 반을 약간 상회하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집에 태어난 것에 만족할 뿐,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지원체계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청소년의 가출로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족이

달 성향은 분명히 우려되는 상태이다.

청소년의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 지각 양상은 가족의 경제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을 포함하여 가족간의 소원함, 무관여, 가족간의 불화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모가 생활비나 학비 때문에 돈 걱정을 하신다는 응답비율이 1/4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가정 형편에 청소년들이 신경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사회는 과행적 교육제도의 실시에 의해 가계에 공적 교육비가 주는 부담보다 사적 교육비가 주는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할 때, 과외비로 투자한 만큼 학교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현실에서 부모가 받는 경제적 부담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로 받을 잠재성이 다분히 있다.

기존 문헌들에 의하면, 가족갈등 원인의 큰 부분이 부모-자녀간의 대화 부재 및 대화 기술의 부족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의 대화를 힘들게 만드는 의사소통 양상 및 의사소통 장애 원인을 알아 보았다. 청소년이 부모와의 대화 장애 원인으로 복수 응답한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정한 것은 자신과 부모님 어린 시절이나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개성과 있는 그대로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교하거나, 자녀들이 이해할만한 양육에 대한 원칙이 없어 칭찬할 때와 꾸짖을 때를 분별하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대화를 주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식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게 때문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전통적으로 사회, 경제, 정치의 하부구조가 가족에 기반을 두었던 가족의 다양한 기능과 달리 사회적 기능으로 대부분 넘어간 현대 가정은 더욱 분화, 약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사소통에 관한 부모의 어떤 태도가 청소년을 화나게 하는 지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자신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지시만 내리려고 할 때,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낼 때, 부모의 생각만이 옳고 내 의견은 잘못되었다고 할 때가 응답율이 각각 거의 50% 내외에 상당했다.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으로 할 때, 나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들을 때, 나의 말꼬리를 잡을 때도 지적되었다.

이상은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선 사회의 구조 및 의식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므로 청소년의 문화와 심리에 대해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가치관이나 의식 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세대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양측

의 대화의 기술 부족에서 올 수도 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대화의 문화는 중국, 일본보다도 더 정통성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유교의 엄격한 주종, 위계질서적 특성에서는 낮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화의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공식 학교교육에서 대화법을 교과과정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청소년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와 고민을 부모와 나누고 상의할 수 있도록 자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친밀한 애정의 대화로 자녀의 필요와 욕구를 조정해 주고, 자녀의 입장에 자신을 놓아보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가정 밖에서 자신을 이해할 사람을 찾거나 또래 집단과 자신의 고민을 상의하여 잘못된 충고에 현혹되어 비행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응답결과에 의하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해 모르고, 또, 자신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모른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무지에 의해 부모가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보다는 오히려 좌절시키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데 필수요건인 청소년에 대한 심리·신체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이해부족에서 오는 부모 자녀간의 갈등이 클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해 준다. 요즘 청소년의 심리와 사고방식에 대해서 부모측에서 다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부모가 기대한다는 문제, 그리고 부모의 못 이룬 꿈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한다는 응답율이 각각 50% 이상 달했다. 여기서 또 꾸짖을 때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 경우에 대한 높은 응답율에서, 비교의 내용이 주로 학교성적 및 공부와 관련된 현실을 감안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압력은 자녀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부모들의 대리 만족 추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무엇에 약한지를 파악하여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독려해야 할 것이다. 각자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가정내에서 조성될 때 자녀에 대해 무엇을 기대할 지도 분명해지리라 본다.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고 말하는 경우, 살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 자식에게는 말로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 자신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가 지켜야 할 사항은 많지만 부모가 지켜야 할 사항은 거의 없다

는 경우, 걸핏하면 신경질을 낸다는 경우가 각각 30%를 상회하는 응답율을 보여, 우리는 여기서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자녀들에게 실시할 만큼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다. 거기다 술취한 모습을 자주 본다는 응답율도 세명중 한명 꼴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의 사회화를 위한 역할 모델이 되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 결여와 성실치 못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문제 행동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자 청소년의 역할 모델이 아버지인 점과, 아버지의 모습이 앞으로 아들의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부모교육에서 아버지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장애요인과 부모의 문제 행동간의 상관분석에 의하면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가족체계에 문제가 많은 가족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고, 또한 의사소통의 장애요인도 많고, 부모의 문제 행동도 많았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경우, 어느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문제의 복합성이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이 직면하는 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종합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가족체계의 특성, 역기능적 의사소통, 부모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급별, 직업별, 가계소득별 변수가 가족문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족체계에 대해 교급별로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아버지의 직업별로는 농업이거나 생산 노무직인 경우, 가계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했다. 결국 경제적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업계 고등학생과 아버지의 직업별 지위가 낮고, 경제력이 가장 낮은 저소득층 집단에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 세 변수 즉 교급별 (실업계 학교), 직업, 소득수준은 모두 계층 개념을 이루는 요소로서, 계층이 낮을수록 가족체계의 문제에 대해 높이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별로 보았을 때, 취업모 자녀는 가족체계와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있다고 응답하여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가족체계 문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직업을 직종별로 분석해 볼 때, 어머니가 생산노무직, 농업종사자인 경우에 가족체계에서 가족간 폭력, 경제적 불만, 가족내 규칙과 질서의 문제를 청소년들이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머니의 취업 유무보다

는 어머니의 직종에 따라 가족체계 문제가 지적되므로 여기서도 계층의 문제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었다.

부모의 문제 행동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부모의 문제 행동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하위 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그 내용에서 형식과 체면을 중시하는 면,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 편애를 한다거나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행동, 부모의 이기적 태도 등 부모의 부정적 문제 행동을 남학생이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것은 남학생들이 의식면에서 여학생 보다 더 비판적이기 때문에 응답율이 높다가 보다는, 부모들의 태도나 행위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아들의 일에 더 체면을 세우고, 더 기대하고, 더 편애하는 모습이 남학생들에 비춰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모의 문제 행동에서도 계층과의 상관관계를 보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부정적 부모의 문제 행동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서도 계층과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가장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별로도 생산노무직이나 농업종사자인 경우 자녀에 대한 무관심, 지나친 관대, 과잉기대, 자녀의 귀감이 못되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하류계층 부모의 문제행동은 그들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의해 구조적으로 자녀에게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잠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낮은 소득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의해 가족이 휴식과 정서적 만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급별, 직업별, 가계소득별 사회계층에 따른 응답결과의 차이는 대도시, 중상층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시사하는 바 있다. 즉,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류층, 그리고 농촌의 부모교육이 중시되어야 하고, 그들의 계층과 관련된 열악한 가족환경의 개선도 중요한 문제점임을 부각시켜 준다.

그러나, 계층이 높은 가정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항상 문제가 적은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 볼 때, 우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무관심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가족의 일원으로 통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화를 스스로에게 맡겨 버린 것으로 청소년 이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나타난 부정적 부모의 모습은 자녀 생활에 대해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자녀에 대해 간섭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간섭은 교육수준과 흔히 병행하는 높은 계층적 지위를 사회재생산하

기 위해서, 혹은 계층의 상향이동을 겨냥한 자녀교육의 과열화와 무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극단의 사랑이나 과잉보호 혹은 강요에 의한 무리한 사회화는 자녀가 창조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촉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연령 청소년기에 가서도 수동적이고 의타심이 높아 성인으로 분리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 어른이 될 연습, 준비의 기회를 주는 적절한 정도의 자율성이 중상층 가정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 연구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가족문제가 결국 집생각만 하면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그리고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한 적이 있다는 청소년들을 가족으로 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가족이탈 성향과 가족체계 문제,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장애요인, 부모의 문제 행동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와의 관계, 자녀양육 태도, 가족성원간의 관계에 대해 부모와 사회가 제고할 필요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이러한 결과들에서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지적한 청소년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여 부적응을 초래하는 가족문제를 정리해보면, 그것은 임시위주 교육 및 양육과 관련된 과잉기대, 부모들의 청소년 심리와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일관성 없고, 원칙이 없는 문제 행동, 성취와 능력에 대한 격려의 결핍, 합리적인 지도의 결핍, 인간성의 깊이 및 사회성을 결여한 모습이다. 여기서 청소년들은 부모와 절대량의 대화 시간이 부족하고, 또 대화를 하더라도 의사소통 방법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가족간의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갈등도 생성된다. 그런데 한국의 모든 계층의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그 자녀가 맞부딪치는 갈등의 장은 교육문제였다. 부모 세대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자녀는 부모세대의 비현실적인 과잉기대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임시위주로 자녀양육이 편중될 때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양적으로 풍부할지 모르나 질적으로는 빈약하여 전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가 무시되었다. 그리고 공부에만 가치 두는 부모에 의해 청소년은 자존감을 잃게 된다. 의식주의 필요는 채워지지만 과연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심리적 욕구가 인정되거나 충족되는가는 우리 모두가 꼼꼼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과잉기대 문제에는 부모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실현하려는 부모의 대리만족 추구 측면과 교육을 통해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을 도모하는 전통적 가족주의의 변형된 측면도 고려된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사회참여 기회의 부족으로 오는 자기실현의 좌절에 대한 대상적(代償的) 만족의 수단으로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각 사회집단에 따라 하위 문화가 다양해지는 후기산업 사회에서 청소년 세대의 삶의 경험은 그들의 부모 세대의 그것과 연속성을 지니기 어렵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 세대에 대하여 인생의 성공 목표를 대학입시라는 것에 좁게 한정해 두고, 부모 세대와 동일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동일한 문화를 가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 자녀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파악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녀 각각의 특수성과 개성, 능력을 펼쳐나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부모로서의 훈육과 모범적 역할 모델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사회 구조와 개인을 연결하는 가족이라는 장을 통해서 성인으로 사회화되므로, 청소년 복지의 주요 부분은 가족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가져온 사회 변동에 의해 가족의 구조, 역할, 기능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종합적 복지 제도로서의 현대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약화는 전체 사회 체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개별 가족 차원에서 가족의 통합을 강조해서 청소년 복지를 위한 가족이 안정, 강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과 생산노무직이나 농업종사자의 가족문제가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높게 지적된 것은 하류층 농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부모 교육, 그리고 가족을 강화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족이 처해 있는 계층이 가족이 조직되고, 기능하는 방식을 말해주는 주요 요인인 것이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가족문제가 가족내적 요인들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그리고 변화하는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도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가족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책 모색에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사회 제도적 개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것은 이미 문제가 표출된 요보호 청소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잠재성을 지닌 일반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하여 일차적이고 예방적인 지원에서부터 치료에까지 걸쳐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총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 안

우리 나라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 및 지원 서비스는 요보호 청소년이나 생활보호 대상 가족, 소년가장 가족 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표출된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물리적으로 유실, 유기, 이탈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가정내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국가적 지원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가정내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사회 전반에 팽배하다. 그리하여 가족의 문제는 심각하게 밖으로 드러나 사회 문제화 될 때까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국가나 사회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심각한 사회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청소년의 가족문제에 대한 가족복지 정책적 접근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하여 청소년의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생활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실시되는 것이다. 그 대상은 청소년 개인을 다루더라도 청소년을 가족과 연계하여 다루거나, 가족성원을 집합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제안들은 가족이 청소년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내기 위해 청소년 뿐만 아니라 관련된 가족성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된다.

1. 청소년 관련 교육 및 상담, 시설, 가족지지 서비스

가족 기능의 향상을 위해 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아버지 교육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

현재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회성의 강의 교육이 아닌 수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지적한 부모의 문제 행동중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부모의 과잉기대와

부모가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발달상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강의, 교재, 소책자 등을 통하여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부모 교육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지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녀의 긍정적 행위에 대해 칭찬하고 긍정적 지시사항 등을 포함하는 대안적 접근법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인 문제행동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부모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여성들의 취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내 전통적 성역할만으로는 자녀양육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가정에서 상징적으로만 중요할 뿐, 자녀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들로 하여금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아버지 교육 방법으로는 기업에서 사원 교육프로그램에 부모 교육에 관한 내용을 넣어 아버지들도 부모 교육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안한다. 이것은 화목한 가정이 가져오는 업무 능률성 향상의 측면에서도 기업이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다.

청소년이 겪는 가족문제 해소를 위한 자조집단 형성과 자조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동일한 가족문제를 지닌 이웃들 상호간의 상호 지지도를 높여 그 집단의 문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조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조집단의 기본 목적은 집단성원들이 서로를 도움으로써 하나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가족문제를 경험하는 지역 사회 사람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의 문제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동일한 문제를 가진 가정들 함께 모이게 함으로써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발견에서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동질의식을 느끼고 동일한 문제에 대한 적응방식을 나누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자조집단은 필요에 따라 어머니 집단, 아버지 집단, 자녀 집단으로, 혹은 문제 유형에 따라 소집단화하여 모임을 확대해 감으로써 원활한 라포 형성과 문제 해결 및 완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응집력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실행 방법에서, 청소년들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돕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능

동적이 되도록 청소년을 주체로 하는 접근법의 적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지역적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복지 기관, 교회, 학교 육성회, 기타 사회단체, 성인 교육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곳에서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재와 강의비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관련 가족지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에 대해 홍보한다.

가족지지 서비스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의 능력을 지지,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부모가 자녀의 친구관계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경우, 심한 형제간의 갈등 등이 발생할 때 가족지지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장인협, 1989, p.84). 필요한 경우는 가족치료를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상담소의 사업이 활성화될 때 이러한 가족지지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부모 자신이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스트레스 근원의 해소와 완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를 가족지지 서비스를 통해 실시하도록 한다.

문제를 경험하는 가족은 자신의 가족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스스로 도움을 청할 심리적 여유가 없다. 또한 원조 체계나 개선 프로그램을 불신하며 적대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을 지지 강화하여 가족문제를 예방할 목적으로 가족지지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내 청소년 문제의 해소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다수 일반 가족은 이용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하도록 한다.

가족문제와 부모 자녀관계에 대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이 활성화되고 전문상담요원이 양성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가족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67.1%), 부모들이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에 대한 이해 부족(51.1%), 부모·자녀간의 대화 부재(48.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한 가족 문제라는 것을 나타낸다. 가족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가족상담 기관의 중재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의 강화, 상담소의 확대 설치 및 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부모의 전화’와 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 상담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상담은 사회 복지 관련기관/상담소 같은 이용시설에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도를 높여야 하고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야 한다. 또한 가족상담은 개인이나 가족문제의 사회문제로의 확대를 조기에 예방하는 예방적 서비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상담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므로 가족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수의 부모들에게 구체적인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가족문제 전문 상담요원의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 및 복지 시설이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예방차원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이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가족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 시설의 증설 확장도 모색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생활권 내에 아동 및 청소년 복지관이 설립되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청소년 복지관이 연계를 맺어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역 사회내에서 종합적 문제 해결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족문제 상담의 주요 접수 창구가 되어야 하며 접수된 가족문제를 분류, 조정, 의뢰하는 서비스 기능의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화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여러 종교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2. 청소년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 교육에 바른 대화법을 포함해야 한다. 가정내 청소년의 역할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족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화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대화 태도는 대화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겨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소득이나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나타난 것을 볼때 이는 언어 능력의 한계라기 보다는 의사소통 기술의 한계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언어 생활의 태도와 대화 방법에 수정을 기하도록 한다. 이를 테면 자녀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거절하는 방법,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부모들에게는 청소년의 대화 패턴, 심리를 이해시키고,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는 법, 이야기를 시키는 방법, 그들에 대한 애정이 전달될 수 있는 대화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바른 대화법을 가르치는 내용을 넣어 가족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부 청소년들이 대화의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불만을 호소했으므로, 부모들은 틀에 박힌 예상되는 결론으로 서둘러 재촉하지 말고,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함께 얘기하고, 듣고, 대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 시간보다는 자녀가 좋아하는 간식등을 함께 만들거나, 자녀가 좋아하는 문화 행사나 놀이를 함께 하면서 행사, 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청소년기의 문제는 유아기·학동기 발달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잉태된다. 따라서 취업모의 국민학생 자녀들을 위해 방과 후 학교 교실을 이용한 지역 사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지도자는 대학생으로 실습 학점을 받도록 한다.

최근 우리 나라 여성의 취업 증대에 따른 취업모의 국민학생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실시는 꼭 필요한 실정이다. 혼자 자라는 방치된 아이들은 학업을 지도할 성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사회적 규범과 가정내 역할을 학습할 기회가 없어서 비행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들을 위해 학교가 방과 후 교실 하나를 제공하고, 사회교육 전문요원 혹은 사회복지사 준비과정의 대학 실습생이 학습과 놀이, 간식을 담당하고 실습 학점을 취득하도록 한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한다.

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과 실업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방과 후 취미, 진로관련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집에 없는 것이 많고 문화 시설도 없어 불만이다(16.9%), 공부방이 없다, 부모가 생활비나 학비 때문에 돈걱정을 하신다(25.5%)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청소년의 불만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만은 저소득층과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19조원에 다다르지만 이 불우한 집단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방과 후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컴퓨터 실습, 취미 활동 등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학교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방 자치단체와 종교 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 국가 기관이 한 단위가 되어, 장소는 학교가 제공하고, 강사의 인력은 사회단체가, 재정적 지원은 국가에서 하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중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내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내용이 역할극 등을 포함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 자신이 부모의 바램과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이 꾸미는 미래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족의 의미와 역할, 가족관계, 부모의 태도,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내용을 교과 과정에 넣어 현재 가정의 적응에 도움을 주고 변화하는 미래 가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 내용으로는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도 넣어야 한

다. 청소년들 자신의 가족에 대한 역할극(role play)을 직접 해 봄으로써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등 가족원들에 대한 공감하게 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문제의 대해 사회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고, 아울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임할 때 해소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경험을 통해 세대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참여중심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상당한 비율이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 세대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거리를 좁히는 길의 하나는 기성 세대의 삶 속으로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인식의 폭을 넓혀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상호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지역 사회는 공식적 지지체계와 다양한 비공식 연결망을 통하여 청소년을 사회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현장이면서 청소년 양육에 꼭 필요한 어른과의 만남 무대가 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중 20-30일 정도를 학교 이외의 기관(공공기관, 기업체, 부모의 사업체나 근로 현장)에서 봉사 경험을 갖도록 하거나, 또는 환경 사업등의 단체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기성 세대나 성인의 세계에 눈을 뜨고, 현실 감각을 갖게 하며 부모와 세대 차이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3. 청소년과 부모의 상호작용 증대를 위한 활동

집안의 힘든 일에 자녀를 참여시켜 협동심을 길러주고 가족성원의 일체감을 갖는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가족문제중 청소년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청소년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고집한다거나 욕구의 표출 방법이 그릇되어 청소년이 가족내에서의 부적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기의 가족문제는 청소년 자신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함께 청소년이 가족의 어려움, 집안의 힘든 일을 극복함으로써 가족의 중요성 및 가족관계,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익히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일체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힘든 일로는 위기 상황에 함께 참여하고, 노환의 조부모님 간호, 부모님이 질병으로 편찮으실 때 간호, 집청소, 설겅이 등의 집안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활동 현장에 부모가 참여하여 지도, 감독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도록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개선, 강화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가 다양한 환경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단체 활동,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지도하고, 보조하고, 감독하여 집단 활동 현장을 통해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한다.

청소년 단체 활동의 프로그램에 가족원이 모두 참여하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단체의 활동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의 실시는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 시기를 이용하여 전 가족 구성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캠프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단위 활동에서 가족원이 모두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으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저소득층 가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다. 청소년 단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의 배포는 각 지방 청소년과가 각 단체의 프로그램 내용을 수록한 종합적인 안내서를 제작하여 각 가정으로 직접 우송하거나, 반상회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4. 기 타

빈곤 청소년의 가족을 위한 공적 부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계층적으로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가정은 경제적 불안과 가족성원간의 관계에 축적되는 긴장과 갈등에 의해 청소년 일탈의 잠재성이 높다. 때문에 공적 부조를 정책적으로 실시하여 가족이 소득을 유지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가 충족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한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정서 교육 및 체력 단련을 위해 문화 체육활동을 촉진
키 위한 입장권 발급제도가 촉구된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우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기의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정서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이나 체육 시설에 대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참여 및 이용을 용이케 할 수 있도록 입장권을 발급한다. 입장권은 1인당 한 계절에 5매 정도로 지역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한다. 이 입장권에 대한 재원조달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도 제공하여 참여를 촉진시킨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건강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홍보가 필요하다.

현대의 대중매체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다. 그러므로 언론과 방송에서는 청소년을 문제 대상으로 보고 가족과 청소년간의 문제를 강조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공익광고등의 형태로 다양한 가족의 건전한 모습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TV 드라마에서도 비정상적이고 문제를 갖고 있는 가족보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유일한 부모모델이나 가족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도리어 발전적인 다

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을 막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다. 다만, 다양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춰 잘 적응해가는 다양한 가족 모델을 대중매체는 계속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가족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지원 방안이 계속 강구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가족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지원 방안이 계속 강구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문제와 욕구는 사회변동과 함께 계속 변화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성과,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여 탄력적이고 적응력 있게 개입하여 청소년이 직면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 극복되도록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원, 상담가, 교육 전문가 등의 이 분야의 전문가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청소년과 부모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즉시 청소년과 부모의 욕구를 파악하고 연구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받아볼 수 있는 전달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상은 가족문제를 청소년 문제의 주요인으로 보고, 가족을 옹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아이디어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와 재원과 인적 자원의 조달에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이종, 김문조(1993).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삼성복지재단 청소년 학술 세미나
-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경숙(1987).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사이의 갈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 논문집, 제15집.
-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김경희(1993).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효성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1991).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준호(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에 대한 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대 석사학위 논문.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 김혜선, 박혜인, 옥선화(1993). 가족관계학,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 김홍주(1993). “한국 가족 문제의 특징.” 한국사회사연구회(편), 한국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문학과 지성사. 172-213.
- 김희영(1986).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과의 관계.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민병근, 이길홍, 김현수(1979). “한국 청소년 학생의 자살 충동 및 자살기도율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 과학 2, 35-42.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수(1988). 문제행동의 교육과 치료, 서울:배영사.

- 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소영(1991). 어머니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청소년기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
- 서울 YMCA(1991). 청소년가출에 대한 설문조사보고서.
- 석말숙(1989). 문제행동 청소년 가족과 일반가족간의 가족역동 비교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송성자(1986).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송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은혜(198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행동 장애에 관한 상관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오재완(1989). 자녀가 지각한 부모권력과 그에 따른 순종도와 수용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영주(1984).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유영주(1991). 공부에 대한 부모의 과잉관심이 아동의 시험불안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 유영주(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제16차 한국 아동학회 1994년도 추계 학술대회, 25-42.
- 윤성림(1990). 자살생각경험을 지닌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이전숙(1982). 어머니의 직업 또는 가사에 대한 만족이 아동의 성역할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 금(1992).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동원, 함인희(1993). “산업화에 따른 가족문제의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가족복지정책 수립의 기술자료 제공을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

- 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순형(1992). “사회불평등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한국청소년연구원. 1~23.
- 이순희(198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관 및 자녀관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시형(1994). “정신과 창구에 비친 가족위기.” 위기에 선 가족. 서울:다산출판사. 47~70.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연관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 이정순(1982).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종승, 오성심(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행동과학 영구소 연구노우트, 제11권.
-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이춘재, 박금주(1994). “한국청소년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한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 산하 발달심리학회, 127-146.
- 이희정(1989).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청소년기 모-자녀관계의 상호지각 분석. 동아대 석사학위 논문.
- 장경섭(1992). “가족문제.” 사회문화연구소편,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189-225.
- 장선경(1988). 비행청소년의 이상적 부모상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장수환(1993). 상담사례분석을 통한 청소년 가출의 원인과 대책.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 장인협(1981), 아동복지연구. 서울:수문사.
- 장하경(1985). 부와 모의 양육태도 및 일치여부가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 장호선(1986).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성심여대 석사학위 논문.
- 정명희(1986). 십대자녀와 부모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석사학위 논문.

- 정영순, 이명홍(1989). “도시 빈곤 가족의 사회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겨울호, 35-63.
- 조결자, 조미영, 김윤희(1986). 모범학생과 비행학생간의 가정환경 비교연구. 경희대 논문집 제15집.
- 조성남(1994). “세대간 갈등의 현장,”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나남.
- 조은경(1993). 부모 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 조흥식(1994). 사회복지 서비스와 가족. 한국 가족학회 학술대회 복지국가와 가족, 79-101.
- 최상숙(1993).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관동대 석사학위 논문.
- 한국문화연구원(1989). 청소년 약물 남·오용 실태와 예방교육 program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이대.
- 한말애(1985).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와 취학전 아동의 지능발달과의 관계.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 한유진(1993).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련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홍재현(1993).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성향과 자아개념간의 관계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 논문.
- 황해자(1984). “부모-자녀관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동아대 대학원 논문집 제8집, 237-271.
- Beavers, W.R.(1977). *Psychotherapy and growth* New York : Brunner/Mazel.
- Beavers, W.R,& Voeller, H.N.(1983). Family Model's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Beavers System Model. *Family Proces* 22, 85-98.
- Farrell, M.P. and Barnes, G.M(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19-132.
- Haley, J.(1976). *Problem-Solving Therapy*. New York : Harper & Row Company.
- Handel, J.(1965). “Psychological study of whole families”. *Psychological Bulletin*,

63, 19—41.

- Haukins, J.L., Weiberg, C. & Ray, D.W.(1980). "Spous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iage and the Family* 42, 585-593.
- Mussen, P.H(1979).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 Prentice-Hall.
- Mussen, P.H., Conger, J., & Kagan, J.(198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ow.
-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arsen.A., Muxen, M. & Wilson, M.(1982).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N.:Univ. of Minnesota.
- Perry, D.G.&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hiffs : Prentice-Hall, Inc.

부 록

I. 설 문 지

II. 주요결과분석표

1. 가족체계의 하위영역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
2. 부모의 문제행동 하위영역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
3. 자아상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
4. 가족이탈 성향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
5.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관련 변수와의 관계

I. 설문지

청소년기 가족에 관한 조사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소년개발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부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본 개발원에서는 청소년기 가족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릇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있는대로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설문지에 여러분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고, 응답 내용은 컴퓨터로 통계 처리되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문항을 끝까지 읽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 6.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연구진 : 이영숙(02-578-7921)

고성혜(02-578-7927)

[문 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거나 써 주기 바랍니다.

1. 나의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나의 연령 : ()세
3. 현재 다니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
 ① 중학교 ② 인문계고등학교 ③ 실업계고등학교
4. 현재 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직할시 ③ 시지역 ④ 군지역
5. 참고서 값을 제외한 한 달 용돈을 얼마나 됩니까? 대략()원 정도

[문 2] 다음의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경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 번호를 골라 ○표를 해 주십시오.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1. 집 생각만 하면 머리가 무겁고, 가슴
이 답답해져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집을 뛰쳐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
다. ① ② ③ ④ ⑤

[문 3] 다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번호를 골라 ○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1.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힘없고 돈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과의 차별이 매우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부도덕한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성공하려면 집안에 권력있는 자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부하는 사람보다 결국 더 출세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4]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가족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되는 응답번호를 골라 ○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1. 가족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간에 말썽이 일어도 서로 상의해 가며 문제를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일이 잘못될 때, 우리 식구는 서로를 탓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식구들은 각각 자기 뜻대로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집에 함께 모여 있거나 외출하는 것을 꺼린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끼리 소리지르고 싸워도 다른 식구들은 관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식구들은 각자의 장점을 인정해 주고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집 식구들은 서로 믿고 의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10. 식구들은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식구들은 서로 때리고 주먹다
짐을 하며 싸우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싸울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은 서로
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며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14.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사이가 나
쁘다. ① ② ③ ④ ⑤
15.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양육방침이
각각 달라서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서로 회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와 형제자매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와 형제자매는 서로 때리며 싸운
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집은 이사를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20. 집에 없는 것이 많고, 문화시설도
부족해서 불만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집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
다. ① ② ③ ④ ⑤
22. 집에 공부방이 없어 불만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남에게 집안 이야기를 하기가 창피
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커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족
은 방해가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우리 집안에 태어난 것에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밥하기, 설겅이 또는 집안 청소를
말아 하느라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7. 형제 수가 적어 나는 부모님 노후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8. 부모님의 건강 좋지 않아, 부모님
돌볼 일이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집안 생활비의 일부를 책임져
야 하므로 벅차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30. 부모님의 직장이 안정되지 않아 나는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부모님은 생활비나 학비때문에 돈 걱정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2. 우리 집은 남의 빛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분 모두 살아계시거나 또는 한분이라도 생존해 계신 경우, 다음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33.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우리 부모에게 너무 의존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우리 집안 일에 간섭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5. 우리 부모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사이가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문 5]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응답 번호를 골라 〇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1. 내가 잘 할 줄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2. 나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학생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체격이나 얼굴에 대해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 인
기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이성에게 인기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우리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
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나를 믿고, 인정해주신다. ... ① ② ③ ④ ⑤
- *8.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 *9. 시작한 때는 열성을 보이니, 곧 흥이
식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10. 하고 싶은 일이나 되고 싶은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 *11. 어떤 일에 대한 견해 차가 있어도,
남들에게 내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
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 *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문 6]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화할 주저하게 될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사유와 가깝다고 생각되면 있는대로 골라
 ()안에 ○표를 하시오.

- ① 서로 바빠서 함께 모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 ()
- ② 대화가 되는 듯 하다가 끝에 가서 안 좋았던 씁쓸한 기억 때문이다. ... ()
- ③ 부모님의 대화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
- ④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
- ⑤ 무슨 이야기를 나누던 간에, 내 탓으로 결론나기 때문이다. ()
- ⑥ 이야기를 나눈 뒤, 부모와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
- ⑦ 부모님과 대화하기가 귀찮기 때문이다. ()
- ⑧ 나를 부모님의 어린 시절이나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

[문 7] 부모님과 대화시,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부모님의 태도는 어떤 때입니까? 있는대로 골라 ()안에 ○표를 해 주십시오.

- ①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침묵할 때 ()
- ② 나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지시만 내리려 할 때 ()
- ③ 부모가 잘못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때 ()
- ④ 이야기 중에 나에게 욕설을 퍼부을 때 ()
- ⑤ 나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듣는 등 마는 등 할 때 ()
- ⑥ 비아냥거리며 말할 때 ()
- ⑦ 즉각적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
- ⑧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낼 때 ()
- ⑨ 부모님의 생각만이 옳고, 내 의견은 항상 잘못되었다고 할 때 ()

- ⑩ 나의 눈치를 살피며 무조건 괜찮다고 할 때()
- ⑪ 나의 말꼬투리를 잡을 때()

[문 8] 다음의 행동이나 태도는 부모님중 어느 분의 행동과 비슷합니까? 어머니의 모습인 경우는 1,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의 모습인 경우는 2, 주로 아버지의 모습인 경우는 3이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아닌 경우는 4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과 가까운 응답번호를 골라 ○표를 해 주십시오.

어머니 모습	어머니 아버지 모습	아버지 모습	두분의 모습이 아님
-----------	------------------	-----------	------------------

- | | | | | |
|---|---|---|---|---|
| 1. 사회 질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는 법을 말씀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2. 인간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말씀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내가 살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4. 나의 사고방식에 대해 모르신다. | ① | ② | ③ | ④ |
| 5. 나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모르신다..... | ① | ② | ③ | ④ |
| 6. 나의 심리상태에 대해 모르신다. | ① | ② | ③ | ④ |
| 7.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 8. 남이야 어떻든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신다..... | ① | ② | ③ | ④ |

어머니 모습	어머니 아버지 모습	아버지 모습	두분의 모습이 아님
-----------	------------------	-----------	------------------

9. 공부는 조금 쳐져도, 나중에 돈만 잘 벌면
최고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것은 못해도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11. 다른 것은 못해도 결혼만 잘하면 최고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12.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 ① ② ③ ④
13. 체면을 매우 중시하신다. ① ② ③ ④
14. 모든 일에 지나치게 완벽하신다. ① ② ③ ④
15. 집안 일은 제쳐 두고, 자기 일밖에 모르신
다. ① ② ③ ④
16. 실속없이 허세를 부리신다. ① ② ③ ④
17. 화투나 트럼프를 하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8. 술취한 모습을 자주 본다. ① ② ③ ④
19. 이유가 분명치 않게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
이 잦다. ① ② ③ ④
20. 부모님은 나에게 말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
만, 부모님 자신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다. ... ① ② ③ ④

어머니 모습	어머니 아버지 모습	아버지 모습	두분의 모습이 아님
-----------	------------------	-----------	------------------

21. 내가 지켜야 할 사항은 많지만, 부모님이
지켜야 할 사항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22.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부모님은 어떤 때에는
아무 말없이 그냥 지나가고, 어떤 때에는
화를 내신다. ① ② ③ ④
23. 남이 있을 때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평소와 너무 다르다. ① ② ③ ④
24. 부모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식에게는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25. 특정 자식에 대해 편애하신다. ① ② ③ ④
26. 꾸짖을 때, 다른 집 자녀와 나를 비교하신다. ① ② ③ ④
27. 여자와 남자에 대한 구분을 심하게 한다. ... ① ② ③ ④
28. 타당한 이유없이 나를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29. 결핍하면 신경질을 잘 내신다. ① ② ③ ④
30. 나를 귀찮아하신다. ① ② ③ ④
31. 내가 칭찬받을만한 일을 해도 칭찬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어머니 모습	어머니 아버지 모습	아버지 모습	두분의 모습이 아님
-----------	------------------	-----------	------------------

32. 내가 꾸중들을 만한 일을 해도 꾸중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33. 나의 요구나 약속을 잊어버리신다..... ① ② ③ ④
- * 34. 부모님은 지나치게 나에게 헌신적으시다... ① ② ③ ④
35.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갖게 허락하신
다. ① ② ③ ④
36. 나를 너무 어린아이 취급하신다..... ① ② ③ ④
37.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게
허락하신다. ① ② ③ ④
38. 부모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나에게 기대하신다..... ① ② ③ ④
39. 부모님이 못이룬 꿈을 내가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신다. ① ② ③ ④
40. 부모님이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을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41. 집에서의 나의 자유시간을 허락하지 않으
신다. ① ② ③ ④
42.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음식에 대해 간섭한
다. ① ② ③ ④
- *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어머니 모습	어머니 아버지 모습	아버지 모습	두분의 모습이 아님
-----------	------------------	-----------	------------------

43.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일일이 알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44. 종교나 직업관등에 대해 부모님과 나의 의견
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45. 나에 관한 일을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정하
신다. ① ② ③ ④
46. 부모님이 좋다고 생각되면, 나에게로 강제
로라도 시키신다. ① ② ③ ④
47. 부모님이 너무 엄하셔서 농담이 통하지 않
는다. ① ② ③ ④
48. 나에게 솔직하라고 하지만, 부모님은 나에
게 솔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49. 나에게 남의 눈치만 보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0. 나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면서 부
모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1.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의 온
혜를 모른다고 섭섭해 하신다. ① ② ③ ④
- *52. 부모님이 바빠서 집안일에 소홀할 때, 좀더
잘 살기 위한 것이니 불편을 참으라고 하
신다. ① ② ③ ④
- *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문 9] 다음은 여러분 자신의 부모님에 한정된 질문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보고 느낀 경험에 비추어 응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래의 중고등 학생들이 생활하기 더욱 어렵게 하는 부모들의 문제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는 행동을 5가지만 골라 그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 (), ()

1. 부모의 술선수범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것
2. 부모가 서로 다른 양육기준을 갖고 있는 것
3.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과민 반응
4. 부모가 생업(돈벌이, 직업)에만 매달리는 것
5. 청소년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6. 자기자식만 아는 이기주의적 태도
7.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
8. 부모로서 자녀 통제 능력 및 기술이 없는 것
9.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에 대한 이해 부족
10. 물질적인 것(돈, 권력, 자리 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
11. 부모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성격
12. 부모가 입시 위주의 양육에 매달리는 것
13. 자녀와의 대화의 부재
14. 부모 자신의 인생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이는 것

[문 1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거나 써 주기 바랍니다.

1. 현재 부모님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현재 나의 부모님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친부모님() ②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③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④ 어머니 혼자입니다() ⑤ 아버지 혼자입니다() ⑥ 두 분 다 안 계시다()

3. 부모님의 연령 : 아버지()세 어머니()세

4.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지냅니까 ()

- ① 부모님과 함께 산다 ② 부모님 중 한 분과 떨어져 산다
③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산다(하숙, 자취, 기숙사 등) ④ 부모님과 떨어져 친척집에서 산다.

5. 가족원은 자신을 포함해 모두 몇 명입니까? 단, 결혼해서 따로 사는 가족은 제외함. ()명

6. 형제자매는 모두 몇 명입니까? 자신과 결혼한 자신의 형제자매까지 모두 포함하시오.

()명

7. 부모님을 비롯해서 식구들이 사용하는 방수는 몇개입니까(마루, 거실 제외)? ()개

8. 부모님의 최종학력은?(중도의 경우는 졸업한 것으로 간주함)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의 경우()

- ① 국민학교 졸업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9. 여러분 가족의 한달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 ① 50만원미만 ② 50만원이상~70만원미만 ③ 70만원이상~100만원이상
④ 100만원이상~150만원이상 ⑤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⑥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⑦ 300만원이상~

10. 부모님의 직업은? 아래 번호에 없는 경우에는 자세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의 경우()

- ① 전문직 : 법률가, 교수, 연구원, 예술가, 의사, 언론인, 종교인, 약사,
간호사, 교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설계사, 비행기조종사 등
- ② 관리직 : 기업체 간부, 사무관이상 공무원, 중소기업 중역, 금융기관 간
부, 소령이상 직업군인 등
- ③ 판매직 : 상점 주인, 상점 점원, 외판원, 보험모집인, 부동산 중개인 등
- ④ 서비스직 : 이발사, 미용사, 조리사, 세탁업, 숙박업 종사자 등
- ⑤ 생산노무직 : 숙련공, 기능공, 기관사, 선원, 운전기사, 목수, 막노동, 기
계수리공, 파출부, 청소부, 수위
- ⑥ 가내노동 : 봉제, 미싱, 단추달기, 실밥따기, 샴바느질, 부품 조립, 마늘
까기, 봉투만들기, 행상 등
- ⑦ 사무직 : 일반 공무원, 일반 회사원, 일반 은행원, 도서관 사서, 대위이
하 직업군인 등
- ⑧ 소방원, 경찰관, 우체부 등 ⑨ 농업, 어업, 광업 ⑩ 무직 ⑪ 가정주부

.....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II. 주요결과 분석표

1. 가족체계의 하위영역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

(1) 가족수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부 양 부 담	집단1(3명이하)	6.45(2.65)	A	37.49***
	집단2(4명)	5.50(2.30)	B	
	집단3(5명)	4.81(2.14)	C	
	집단4(6명이상)	4.67(1.96)	C	
물 리 적 환 경 에 대 한 불 만	집단1(3명이하)	13.12(5.12)	A	23.99***
	집단2(4명)	10.91(3.93)	B	
	집단3(5명)	11.51(4.36)	B	
	집단4(6명이상)	12.76(5.02)	A	
정 서 적 유 대	집단1(3명이하)	12.20(3.88)	AB	2.98*
	집단2(4명)	11.96(3.63)	A	
	집단3(5명)	12.21(3.77)	AB	
	집단4(6명이상)	12.47(3.79)	B	

* $P < .05$

*** $P < .001$

(2) 지역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부 양 부 담	서 울 시	4.82(2.00)	A	5.94***
	직 할 시	5.31(2.26)	B	
	시 지 역	5.08(2.28)	AB	
	군 지 역	5.35(2.39)	B	
물 리 적 환 경 에 대 한 불 만	서 울 시	10.85(4.25)	A	9.77***
	직 할 시	11.88(4.56)	B	
	시 지 역	11.79(4.39)	B	
	군 지 역	12.42(4.83)	B	
가 족 불 화	서 울 시	10.63(4.12)	A	6.12***
	직 할 시	11.60(4.34)	B	
	시 지 역	10.96(3.83)	AB	
	군 지 역	10.69(4.17)	A	
가 족 의 적 응 성	서 울 시	12.95(4.66)	AB	3.99***
	직 할 시	13.60(4.68)	A	
	시 지 역	12.77(4.19)	B	
	군 지 역	13.15(4.37)	AB	
정 서 적 유 대	서 울 시	11.98(3.92)		1.86*
	직 할 시	12.41(3.88)		
	시 지 역	12.00(3.59)		
	군 지 역	12.30(3.56)		

* $P < .05$

*** $P < .001$

(3) 어머니의 취업유무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t값
가 족 부 양 부 담	취 업	5.36(2.37)	-4.70***
	비 취 업	4.91(2.10)	
물 리 적 환 경 에 대 한 불 만	취 업	12.41(4.67)	-7.28***
	비 취 업	11.04(4.24)	
가 족 불 화	취 업	11.29(4.24)	-3.27***
	비 취 업	10.72(3.95)	
가 족 의 적 응 성	취 업	13.46(4.54)	-3.88***
	비 취 업	12.72(4.36)	
정 서 적 유 대	취 업	12.37(3.71)	-2.70**
	비 취 업	11.95(3.75)	

** P<.01

*** P<.001

(4) 어머니의 직업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물 리 적	집단1(전문관리직)	10.41(4.03)	A	9.24***
환 경 에	집단2(판매서비스직)	12.10(4.53)	A	
대 한	집단3(사무직)	11.11(4.17)	A	
불 만	집단4(생산노무직)	13.26(4.85)	B	
가 족 불 화	집단1(전문관리직)	9.92(3.50)	A	3.94*
	집단2(판매서비스직)	11.27(3.99)	AB	
	집단3(사무직)	10.31(3.99)	AB	
	집단4(생산노무직)	11.90(4.77)	B	
	집단5(농업)	11.41(4.29)	AB	
가 족 의 적 응 성	집단1(전문관리직)	12.76(4.15)	AB	4.34**
	집단2(판매서비스직)	13.40(4.50)	AB	
	집단3(사무직)	12.23(3.85)	A	
	집단4(생산노무직)	14.35(4.72)	B	
	집단5(농업)	13.16(4.36)	AB	

* $P < .05$

** $P < .01$

*** $P < .001$

(5)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족부양 부담	집단1(국졸)	5.52(2.44)	A	9.38***
	집단2(중졸)	5.15(2.23)	AB	
	집단3(고졸)	5.02(2.17)	BD	
	집단4(대졸이상)	4.60(1.89)	CD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	집단1(국졸)	13.85(4.64)	A	59.75***
	집단2(중졸)	11.99(4.39)	B	
	집단3(고졸)	10.79(4.04)	C	
	집단4(대졸이상)	10.03(4.38)	C	
가족 불화	집단1(국졸)	11.71(4.28)	A	7.09***
	집단2(중졸)	11.08(4.07)	AB	
	집단3(고졸)	10.67(3.92)	B	
	집단4(대졸이상)	10.54(4.11)	B	
가족의 적응성	집단1(국졸)	13.89(4.51)	A	6.04***
	집단2(중졸)	12.87(4.23)	B	
	집단3(고졸)	12.86(4.40)	B	
	집단4(대졸이상)	12.83(5.50)	B	

*** $P < .001$

(6) 어머니의 연령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부 양 부 담	집단1(40세이하)	5.12(2.15)	AB	5.51**
	집단2(41세이상 45세이하)	4.99(2.24)	A	
	집단3(46세이상)	5.35(2.32)	B	
물 리 적 환 경 에 대 한 불 만	집단1(40세이하)	11.36(4.40)	A	13.43*
	집단2(41세이상 45세이하)	11.42(4.33)	A	
	집단3(46세이상)	12.47(4.79)	B	
가 족 의 적 응 성	집단1(40세이하)	12.77(4.26)	A	7.96***
	집단2(41세이상 45세이하)	12.89(4.36)	A	
	집단3(46세이상)	13.66(4.74)	B	
정 서 적 유 대	집단1(40세이하)	11.98(3.65)		3.59*
	집단2(41세이상 45세이하)	12.03(3.73)		
	집단3(46세이상)	12.47(3.79)		

* $P < .05$

** $P < .01$

*** $P < .001$

(7) 아버지의 직업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부 양 부 담	집단1(전문관리직)	4.87(2.02)	A	5.66***
	집단2(판매서비스직)	5.03(2.19)	AB	
	집단3(사무직)	4.84(2.15)	A	
	집단4(생산노무직)	5.44(2.27)	B	
	집단5(농업)	5.13(2.35)	AB	
물 리 적 환 경 에 대 한 불 만	집단1(전문관리직)	10.19(3.91)	A	46.14***
	집단2(판매서비스직)	11.43(4.17)	B	
	집단3(사무직)	10.32(4.00)	A	
	집단4(생산노무직)	12.87(4.55)	C	
	집단5(농업)	13.34(4.73)	C	
가 족 불 화	집단1(전문관리직)	10.59(3.98)	AC	5.28***
	집단2(판매서비스직)	11.04(4.17)	AB	
	집단3(사무직)	10.49(3.79)	A	
	집단4(생산노무직)	11.44(4.21)	B	
	집단5(농업)	11.47(4.26)	BC	
가 족 의 적 응 성	집단1(전문관리직)	12.76(4.40)	AB	3.87**
	집단2(판매서비스직)	13.01(4.25)	AB	
	집단3(사무직)	12.53(4.41)	A	
	집단4(생산노무직)	13.57(4.52)	B	
	집단5(농업)	13.30(4.56)	AB	
정 서 적 유 대	집단1(전문관리직)	11.65(3.76)	AB	6.20**
	집단2(판매서비스직)	12.31(3.81)	A	
	집단3(사무직)	11.73(3.70)	AC	
	집단4(생산노무직)	12.59(3.68)	B	
	집단5(농업)	12.56(3.67)	BC	

** P<.01

*** P<.001

(8) 아버지의 교육수준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부 양 부 담	집단1(국졸)	5.59(2.43)	A	10.82***
	집단2(중졸)	5.34(2.36)	AC	
	집단3(고졸)	4.98(2.14)	BC	
	집단4(대졸이상)	4.78(2.02)	B	
물 리 적 환 경 에 대 한 불 만	집단1(국졸)	14.22(4.56)	A	65.86***
	집단2(중졸)	12.80(4.58)	B	
	집단3(고졸)	11.12(4.18)	C	
	집단4(대졸이상)	10.24(4.06)	D	
가 족 불 화	집단1(국졸)	11.84(4.21)	A	8.49***
	집단2(중졸)	11.41(4.10)	AC	
	집단3(고졸)	10.90(4.14)	BC	
	집단4(대졸이상)	10.45(3.91)	B	
가 족 의 적 응 성	집단1(국졸)	14.07(4.80)	A	6.97***
	집단2(중졸)	13.24(4.43)	AB	
	집단3(고졸)	12.95(4.35)	B	
	집단4(대졸이상)	12.59(4.48)	B	
정 서 적 유 대	집단1(국졸)	12.96(3.80)	A	11.33***
	집단2(중졸)	12.48(3.51)	AB	
	집단3(고졸)	12.15(3.77)	B	
	집단4(대졸이상)	11.46(3.74)	C	

*** $P < .001$

(9) 가계소득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 족 부 양 부 담	집단1(70만원 미만)	5.77(2.56)	A	11.44***
	집단2(70-100만원 미만)	5.38(2.29)	AC	
	집단3(100-150만원 미만)	5.13(2.17)	BC	
	집단4(150-200만원 미만)	4.89(2.11)	B	
	집단5(200만원 이상)	4.74(2.05)	B	
가 족 불 화	집단1(70만원 미만)	11.74(4.52)	A	3.85***
	집단2(70-100만원 미만)	11.17(3.96)	AB	
	집단3(100-150만원 미만)	10.92(4.10)	AB	
	집단4(150-200만원 미만)	10.72(3.93)	B	
	집단5(200만원 이상)	10.62(3.88)	B	
물 리 적 환 경 에 대 한 불 만	집단1(70만원 미만)	14.59(5.07)	A	69.91***
	집단2(70-100만원 미만)	12.85(4.40)	AB	
	집단3(100-150만원 미만)	11.62(4.23)	B	
	집단4(150-200만원 미만)	10.74(3.83)	B	
	집단5(200만원 이상)	9.63(3.51)	B	
가 족 의 적 응 성	집단1(70만원 미만)	14.09(4.93)	A	5.77**
	집단2(70-100만원 미만)	13.28(4.27)	AB	
	집단3(100-150만원 미만)	13.04(4.33)	B	
	집단4(150-200만원 미만)	12.70(4.16)	B	
	집단5(200만원 이상)	12.59(4.59)	B	
정 서 적 유 대	집단1(70만원 미만)	13.03(3.85)	A	8.65***
	집단2(70-100만원 미만)	12.52(3.53)	AC	
	집단3(100-150만원 미만)	12.10(3.69)	BC	
	집단4(150-200만원 미만)	11.72(3.50)	B	
	집단5(200만원 이상)	11.59(4.00)	B	

*** P<.001

2. 부모의 문제행동 하위영역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

(1) 성별에 따른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t 값
형식주의	남학생	1.25(1.11)	2.75**
	여학생	1.13(1.05)	
탐닉적행동	남학생	1.26(1.39)	2.69**
	여학생	1.11(1.26)	
과잉기대	남학생	1.18(0.81)	3.32***
	여학생	1.06(0.82)	
편견	남학생	1.05(0.88)	-3.46***
	여학생	1.19(0.96)	
부정적 가치 전수	남학생	0.80(0.96)	2.19*
	여학생	0.71(0.94)	
강요	남학생	1.17(1.31)	4.01***
	여학생	0.96(1.20)	

* $P < .05$

** $P < .01$

*** $P < .001$

(2) 교급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무관심	중학교	2.96(2.21)	A	21.12***
	인문고	3.04(1.96)	A	
	실업고	3.73(2.09)	B	
모순형	중학교	2.08(1.98)	A	11.78***
	인문고	2.14(1.76)	A	
	실업고	2.60(1.97)	B	
형식주의	중학교	1.10(1.08)	A	4.57*
	인문고	1.22(1.09)	AB	
	실업고	1.28(1.07)	B	
탐닉적행동	중학교	1.05(1.27)	A	14.27***
	인문고	1.17(1.34)	A	
	실업고	1.47(1.37)	B	
익 에	중학교	0.75(0.90)		3.01*
	인문고	0.81(0.92)		
	실업고	0.89(0.95)		
편 전	중학교	0.43(0.74)	A	10.52***
	인문고	0.48(0.73)	A	
	실업고	0.64(0.89)	B	
부정적가치전수	중학교	1.07(0.92)	A	9.99***
	인문고	1.08(0.90)	A	
	실업고	1.30(0.97)	B	
강 요	중학교	0.71(0.95)	A	3.46*
	인문고	0.76(0.92)	AB	
	실업고	0.86(1.01)	B	
과잉기대	중학교	1.04(0.83)	A	8.78***
	인문고	1.20(0.81)	B	
	실업고	1.08(0.83)	A	

* P<.05, ** P<.01, *** P<.001

(3) 가족수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무관심	집단1(3명 이하)	3.47(2.34)	A	7.22***
	집단2(4명)	2.90(2.08)	B	
	집단3(5명)	3.20(2.10)	A	
	집단4(6명 이상)	3.38(2.02)	A	
모순형	집단1(3명 이하)	2.44(2.25)		3.07*
	집단2(4명)	2.05(1.77)		
	집단3(5명)	2.26(1.90)		
	집단4(6명 이하)	2.30(1.93)		
탐닉적 행동	집단1(3명 이하)	1.27(1.58)	AB	3.53*
	집단2(4명)	1.08(1.27)	A	
	집단3(5명)	1.22(1.32)	AB	
	집단4(6명 이상)	1.30(1.36)	B	
부정적 가치 전수	집단1(3명 이하)	0.94(1.14)		4.72**
	집단2(4명)	0.71(0.87)		
	집단3(5명)	0.71(0.91)		
	집단4(6명 이상)	0.85(1.04)		

* $P < .05$

** $P < .01$

*** $P < .0001$

(4) 지역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탐닉적 행동	서 울	0.78(1.22)	A	6.72***
	직할시	1.17(1.31)	AB	
	시지역	1.33(1.40)	B	
	군지역	1.21(1.32)	AB	
익 애	서 울	0.67(0.86)	A C	7.26***
	직할시	0.87(0.95)	BC	
	시지역	0.78(0.93)	C	
	군지역	0.74(0.91)	B	
거 부	서 울	2.90(2.14)	A	3.71*
	직할시	3.16(2.10)	AB	
	시지역	3.19(2.13)	AB	
	군지역	3.36(1.95)	B	
강 요	서 울	0.98(1.23)		2.71*
	직할시	1.09(1.30)		
	시지역	1.04(1.25)		
	군지역	1.21(1.25)		
과잉기대	서 울	1.01(0.84)		8.91***
	직할시	1.12(0.82)		
	시지역	1.11(0.83)		
	군지역	1.29(0.77)		
편 견	서 울	1.03(0.89)		3.56*
	직할시	1.16(0.92)		
	시지역	1.10(0.95)		
	군지역	1.27(0.94)		

* $P < .05$

*** $P < .001$

(5) 어머니의 취업유무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t 값
무관심	취 업	3.25(2.12)	2.08*
	비취업	3.07(2.08)	
모순형	취 업	2.33(1.98)	2.81**
	비취업	2.10(1.81)	
간 섭	취 업	0.92(0.92)	-2.15*
	비취업	1.00(0.92)	
탐닉적행동	취 업	1.26(1.36)	2.24*
	비취업	1.13(1.30)	
거 부	취 업	0.54(0.82)	2.81**
	비취업	0.45(0.73)	

* $P < .05$

** $P < .01$

(6)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익 애	집단1(국졸)	0.84(0.91)		2.88*
	집단2(중졸)	0.84(0.91)		
	집단3(고졸)	0.80(0.94)		
	집단4(대졸이상)	0.64(0.85)		
과잉기대	집단1(국졸)	1.14(0.81)	A	6.40***
	집단2(중졸)	1.19(0.81)	A	
	집단3(고졸)	1.11(0.82)	A	
	집단4(대졸이상)	0.92(0.84)	B	
편 견	집단1(국졸)	1.20(0.97)	A	4.50**
	집단2(중졸)	1.17(0.91)	A	
	집단3(고졸)	1.10(0.93)	AB	
	집단4(대졸이상)	0.94(0.84)	B	
무관심	집단1(국졸)	3.70(2.08)	A	24.70***
	집단2(중졸)	3.34(2.11)	A	
	집단3(고졸)	2.90(2.00)	C	
	집단4(대졸이상)	2.42(2.08)	D	
모순형	집단1(국졸)	2.43(1.85)	A	6.66***
	집단2(중졸)	2.33(1.92)	AB	
	집단3(고졸)	2.04(1.87)	C	
	집단4(대졸이상)	1.93(1.80)	CD	
간 섭	집단1(국졸)	0.80(0.87)	A	6.40***
	집단2(중졸)	0.96(0.91)	AB	
	집단3(고졸)	1.02(0.93)	B	
	집단4(대졸이상)	1.09(0.99)	B	
탐닉적행동	집단1(국졸)	1.44(1.41)	A	9.07***
	집단2(중졸)	1.22(1.32)	AB	
	집단3(고졸)	1.11(1.30)	B D	
	집단4(대졸이상)	0.92(1.26)	CD	

* $P < .05$

** $P < .01$

*** $P < .001$

(7) 어머니 연령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무관심	집단1(40세이하)	3.11(2.09)	A	13.37***
	집단2(41세이상 45세이하)	2.94(2.07)	A	
	집단3(46세이상)	3.49(2.10)	B	
모순형	집단1(40세이하)	2.22(1.95)	AB	6.38**
	집단2(41세이상 45세이하)	2.06(1.78)	A	
	집단3(46세이상)	2.40(1.97)	B	
간 섭	집단1(40세이하)	1.05(0.96)	A	4.60*
	집단2(41세이상 45세이하)	0.95(0.90)	AB	
	집단3(46세이상)	0.90(0.91)	B	
편 견	집단1(40세이하)	1.08(0.90)	A	5.53**
	집단2(41세이상 45세이하)	1.08(0.94)	A	
	집단3(46세이상)	1.22(0.93)	B	
부정적 가치 전수	집단1(40세이하)	0.70(0.93)	A	4.35*
	집단2(41세이상 45세이하)	0.74(0.93)	AB	
	집단3(46세이상)	0.85(0.99)	B	
강 요	집단1(40세이하)	1.07(1.28)	AB	3.59*
	집단2(41세이상 45세이하)	1.00(1.22)	A	
	집단3(46세이상)	1.17(1.29)	B	

* P<.05

** P<.01

*** P<.001

(8) 아버지의 교육수준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무관심	집단1(국졸)	3.76(2.13)	A	26.20***
	집단2(중졸)	3.55(2.15)	A	
	집단3(고졸)	3.12(1.98)	B	
	집단4(대졸이상)	2.58(2.08)	C	
모순형	집단1(국졸)	2.50(1.89)	A	8.33***
	집단2(중졸)	2.39(1.94)	A	
	집단3(고졸)	2.21(1.89)	A	
	집단4(대졸이상)	1.89(1.81)	B	
간 섭	집단1(국졸)	0.79(0.88)	A	6.38***
	집단2(중졸)	0.91(0.91)	AB	
	집단3(고졸)	1.02(0.92)	B	
	집단4(대졸이상)	1.06(0.94)	B	
탐닉적 행동	집단1(국졸)	1.55(1.44)	A	14.46***
	집단2(중졸)	1.38(1.32)	A	
	집단3(고졸)	1.16(1.28)	B	
	집단4(대졸이상)	0.97(1.30)	B	
익 애	집단1(국졸)	0.75(0.89)	AB	4.28**
	집단2(중졸)	0.91(0.94)	A	
	집단3(고졸)	0.83(0.92)	AB	
	집단4(대졸이상)	0.71(0.92)	B	
거 부	집단1(국졸)	0.62(0.89)	A	3.56*
	집단2(중졸)	0.51(0.78)	AB	
	집단3(고졸)	0.49(0.76)	AB	
	집단4(대졸이상)	0.44(0.94)	B	
과잉기대	집단1(국졸)	1.25(0.79)	A	6.41***
	집단2(중졸)	1.16(0.79)	AB	
	집단3(고졸)	1.16(0.83)	A	
	집단4(대졸이상)	1.01(0.83)	B	
편 견	집단1(국졸)	1.21(0.93)	A	4.61**
	집단2(중졸)	1.21(0.96)	A	
	집단3(고졸)	1.12(0.92)	AB	
	집단4(대졸이상)	1.01(0.88)	B	
부정적 가치전수	집단1(국졸)	0.88(1.05)	A	2.98*
	집단2(중졸)	0.79(0.95)	AB	
	집단3(고졸)	0.76(0.95)	AB	
	집단4(대졸이상)	0.67(0.90)	B	

* P<.05, ** P<.01, ***P<.001

(9) 아버지의 교육수준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무관심	집단1(전문관리직)	2.67(1.99)	A	14.13***
	집단2(판매서비스직)	3.29(2.06)	B	
	집단3(사무직)	2.82(2.14)	A	
	집단4(생산노무직)	3.47(2.04)	B	
	집단5(농업)	3.51(2.11)	B	
모순형	집단1(전문관리직)	1.99(1.73)	A	4.27**
	집단2(판매서비스직)	2.30(1.94)	AB	
	집단3(사무직)	2.02(1.86)	A	
	집단4(생산노무직)	2.42(1.96)	B	
	집단5(농업)	2.22(1.89)	AB	
탐닉적 행동	집단1(전문관리직)	0.97(1.22)	A	7.66***
	집단2(판매서비스직)	1.29(1.32)	BC	
	집단3(사무직)	1.06(1.28)	A C	
	집단4(생산노무직)	0.37(1.33)	B	
	집단5(농업)	1.32(1.42)	BC	

** P<.01, *** P<.001

(10) 가계소득별 분석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무관심	집단1(70만원 미만)	3.72(2.09)	A	15.94***
	집단2(70~100만원 미만)	3.52(2.11)	B	
	집단3(100~150만원 미만)	3.17(2.10)	C	
	집단4(150~200만원 미만)	2.88(1.98)	D	
	집단5(200만원 이상)	2.64(2.06)	D	
탐닉적 행동	집단1(70만원 미만)	1.46(1.50)	A	7.98***
	집단2(70~100만원 미만)	1.24(1.31)	AB	
	집단3(100~150만원 미만)	1.28(1.34)	A	
	집단4(150~200만원 미만)	1.01(1.18)	B	
	집단5(200만원 이상)	0.99(1.24)	B	

*** P<.001

3. 자아상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

(1) 성별에 따른 자아상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t값
자아상	남학생	26.79(5.05)	6.68***
	여학생	25.39(4.87)	

*** $P < .001$

(2) 교급별 자아상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자아상	중학교	26.24(5.23)	A	15.37***
	인문고	26.50(4.70)	A	
	실업고	24.95(5.11)	B	

*** $P < .001$

(3) 아버지 직업별 자아상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자아상	집단1(전문관리직)	26.99(4.61)	A	6.15***
	집단2(판매서비스직)	26.13(4.97)	AB	
	집단3(사무직)	26.61(5.17)	A	
	집단4(생산노무직)	25.46(5.10)	B	
	집단5(농업)	25.41(4.78)	B	

*** $P < .001$

(4) 가계소득별 자아상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자아상	집단1(70만원 미만)	25.26(5.26)	A	10.29***
	집단2(70~100만원 미만)	25.37(4.96)	A	
	집단3(100~150만원 미만)	26.17(4.97)	A	
	집단4(150~200만원 미만)	26.37(4.90)	AB	
	집단5(200만원 이상)	27.35(5.02)	B	

*** $P < .001$

4. 가족이탈 성향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

(1) 성별에 따른 가족이탈 성향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t값
가족 이탈성향	남학생	8.25(3.19)	-3.50***
	여학생	8.73(3.30)	

*** $P < .001$

(2) 지역별 가족이탈 성향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족이탈성향	서 울	8.39(3.26)	AB	4.88*
	직할시	8.77(3.20)	A	
	시지역	8.20(3.23)	B	
	군지역	8.81(3.31)	A	

* $P < .05$

(3) 어머니의 연령별 가족이탈 성향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족 이탈 성향	집단1(40세이하)	8.29(3.30)	A	10.26**
	집단2(41세이상 45세이하)	8.20(3.14)	A	
	집단3(46세이상)	8.97(3.32)	B	

** $P < .01$

(4) 아버지 직업별 가족이탈 성향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가족 이탈 성향	집단1(전문관리직)	6.73(3.34)	AB	3.51**
	집단2(판매서비스직)	6.50(3.17)	AB	
	집단3(사무직)	6.08(3.32)	A	
	집단4(생산노무직)	8.76(3.20)	B	
	집단5(농업)	8.28(3.09)	AB	

** $P < .01$

5.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관련 변수와의 관계

(1) 교급별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중학교	26.52(4.47)	A	78.52***
	인문고	28.74(3.43)	A	
	실업고	28.51(3.57)	B	

*** $P < .001$

(2) 지역별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서 울	27.74(3.95)	A	9.77***
	직할시	28.55(3.60)	B	
	시지역	27.45(4.16)	A C	
	군지역	28.27(3.95)	AB	

*** $P < .001$

(3) 어머니의 연령별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Scheffé	F/유의도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집단1(40세이하)	27.18(4.35)	A	16.14***
	집단2(41세이상 45세이하)	28.12(3.77)	A	
	집단3(46세이상)	28.35(3.79)	B	

*** $P < .001$